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4호 HYUNBULNEWS.COM 2025년 8월 27일(음력 7월 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복날 채식 문화’ 불교 넘어 사회로

복날 전후로 SNS 채운 ‘채식’ 인증
‘기후위기 극복’ 화두 담아내기도
레시피 공유…사회적 흐름으로
불교환경연대 캠페인 확산 역할
생명존중 등 시대적 가치 부합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삼계탕 대신 채식 식단으로 건강을 위해. #복날채식 #기후위기”
– SNS 게시물 中 일부

한국의 보양식 문화가 다변화되고 있다. 복날을 전후로 ‘보양식’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가 소셜미디어(SNS)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가운데, 흔히 떠올리는 ‘삼계탕’이 아닌 채식 보양식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식물성 식단으로 구성된 보양식으로, 제철 식재료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건강식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복날 채식’이 생명을 살리고 기후를 살리는 ‘힙’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

여름철 복날이 되면 몸보신을 위해 육식을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2030세대가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SNS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초복이었던 7월 20일부터 말복인 8월 9일 사이 인스타그램을 뜨겁게 달군 게시물은 복날 채식 레시피. 가지와 애호박, 들깨 등을 활용한 덮밥에서 도토리묵 무침, 콩물 국수 등 종류도 다양하다. 초·중·말복 당일 ‘복날 채식’ 인증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다채로운 레시피와 후기가 최근까지도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특히 게시물 중 대다수는 다이어트와 건강을 넘어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메시지까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날 채식 레시피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이자 요리 연구가인 조앤 리 몰리나로가 자신의 SNS 계정에 복날 채식 식단을 공개한 것도 한몫했다. 초복 당일 콩국수를 포스팅한 그는 “찾아보면 더위를 식혀 줄 맛있는 채식 요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서 “우리의 몸과 동물들 그리고 지구에 대한 사랑까지 보여주는 훌륭한 음식들”이라고 강조했다.

조앤 리 몰리나로는 미국 요식업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상 수상자로서 세계에 한식과 비건 열풍을 이끈 요리 인플루언서이기에 당시 게시물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됐다.

‘복날 채식’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은 시대적 흐름뿐 아니라 불교계의 역할도 컸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복날 시즌에 닭고기 도축량이 급증하는 것을 경계하며 육류 중심의 보양식 대신 콩국수나 채개장, 버섯전골 등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대체 보양식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간 ‘복날 채식 캠페인’을 진행했다. ‘복날에 고기 대신 채식으로 지구도 살리고 복도 쌓아요’를 슬로건으로 한 올해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서약자는 500여 명. 지난해에 비해 곱절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캠페인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다양한 레시피도 함께 공유하며 ‘채식 요리는 어렵다’는 인식을 깨뜨리기도 했다. 올해 말복에는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상불사 주지 동효 스님과 함께 ‘채식 밥상’을 진행하며 동참자들이 직접 기른 채소와 나물을 활용한 연꽃잎밥과 도토리전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육식 위주의 복날 문화를 생명존중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채식 중심의 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무더운 여름, 보양식이 꼭 동물성 식재료일 필요는 없다”며 “채식은 생명을 살리고, 기후를 살리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8월 17일 서울 진관사를 참배했다. 사진은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 주지 법해 스님(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함께 보물 ‘진관사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이 대통령 내외. 사진=대통령실

진관사 참배한 이재명 대통령 “국민 통합”

8월 17일, 호국사찰 진관사 방문
‘진관사 태극기’에 “애국의 숨결”
명상 후 계호 스님 사찰음식 공양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7일 호국사찰 서울 진관사를 참배하고 국민 통합의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8월 17일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근거지이자 스님이 비장(備藏)한 ‘진관사 태극기(보물)’가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이다.

대웅전을 참배한 이 대통령 내외는 향을 피우고 죽비에 맞춰 삼배를 올렸다. 이어 진관수륙재보존회 어산 덕현 스님이 축원화청을 진행했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회주 계호 스님과 주지 법해 스님은 호국사찰로 큰 역할을 해온 진관사의 역사를 설명하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직접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진관사 태극기’에 대해 “꺼지지 않는 애국의 숨결을 목도한다”며 “독립투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관사 인근 한문화체험관에서 명상을 체험한 후 사찰음식 명장 계호 스님이 준비한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어지러웠던 지난날을 뒤로 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서로 갈라져 상처 입은 국민들을 잘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조계종 “종단 안정·포교 활성화” 기조 대폭 인사

총무부장 성웅·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교육부장 유정 스님
진우 스님 “전법·소통·화합”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20일 부실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종단 안정과 포교·전법 활성화를 기조로 대대적인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인사를 단행했다.

진우 스님은 8월 20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총무원 부실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사회부장 진성 스님, 사서실장 남전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임명됐다. 재무부장 여학 스님과 호법부장 도심 스님, 미디어홍보실장 덕안 스님은 유임됐다.

산하기관장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 한국문화연수원장 자공 스님이 임명됐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유임됐다.

진우 스님은 이번 인사의 기조를 ‘종단 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종단은 모든 신도와 불자, 나아가 국민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각 소임자 스님들이 부담이 있겠지만 일선 지휘자로 역량을 잘 발휘해서 포교·전법에 임하고, 국민 평안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불교의 역할과 소명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위로는 종정 예하를 잘 모시고, 소임자 간 원활한 소통으로 종단 안정과 화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2면〉

김내영 기자

제43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기 간 : 2025년 10월 11일(토)~11월 29일(토)
총 8주 매주(토) 오후 1:30~5:30
(1주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1시~6시)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문 의 : 031-470-3200/319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취임 3년차 '선명상' 등 주요 종책 뒷받침

진우 스님, 기관장에 '책임감' 강조
소임자들 "불교 위상 강화 진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사회부장 진성 스님


사서실장 남전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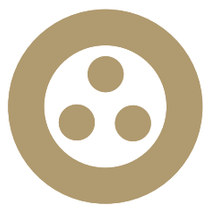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


한국문화연수원장 자공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기를 1년여 남기고 단행한 대규모 인사의 기조를 '종단 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발생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이후 집행부의 업무 집중력을 높여 선명상 대중화 등 주요 종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우 스님은 특히 신임 부실장들에게 "종무행정을 빠르게 파악해 업무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하기관장들에게는 책임감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독립된 기관으로 책임감이 막중하겠지만 스스로가 '총무원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한국불교 중흥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신임 부실장 및 산하기관장 스님들은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이어 종단과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총무부장 성웅 스님은 종상 스님을 은사로 1981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불국사선원 등에서 수행 정진하며 65안거 이상을 성만했다. 대승사, 각화사, 보경사, 흥국사 주지를 지냈으며 조계종 법규위원회 법규위원,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죽림사 주지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법등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사회부 사회국장,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도리사·학도암 주지를 지냈다. 현재 연화사 주지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중선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사미계)했다. 포교원 포교부 신도국장을 역임했으며, 울산경남지역 전법단 지도법사로 활동했다. 현재 용궁사 주지다.

교육부장 유정 스님은 성오 스님을 은사로 1979년 수계(사미계)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운수사 주지를 역임했다.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혜인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사회부 사회국장, 미래본부 사무총장,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약천사 주지를 지냈다. 현재 정수사 주지다.

사회부장 진성 스님은 혜산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사미계)했다. 내소사 봉래선원 등에서 수행 정진하며 20안거 이상을 성만했다. 내소사 주지를 역임했다.

사서실장 남전 스님은 세민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총무부 총무국장, 기획실 기획국장, 포교원 및 총무원 포교부장을 역임했다. 정혜사, 안양사 주지를 역임했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원융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재무부장, 사서실장,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제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보리사, 옥련암, 옥천암 등에서 주지를 지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1995년 수계(사미계)했다. 부석사 봉황선원 등에서 수행 정진하며 15안거 이상을 성만했다. 유석사, 영주포교당, 서악사, 봉정사 주지를 지냈으며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대원사 주지이며, 제1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청학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사미계)했다. 황련사 주지를 지냈고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제1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은 일관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사서실 종책특별보좌관(문화특보), 문화부장,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용암사 주지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보선 스님을 은사로 1996년 수계(사미계)했다. 상원사 청량선원 등에서 25안거 이상을 성만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기획실 감사국장, 호법부 호법국장,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강진 무위사 주지다.

한국문화연수원장 자공 스님은 일각 스님을 은사로 1979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조사국장, 호법국장,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제16·17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다. 만연사와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를 지냈다.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
"항고 취하·감사 수용"

조계종 중앙종회의 '총림 해제'로 촉발된 동화사 사태와 관련해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이 가처분 항고를 취하하고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8월 19일 회의를 열어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의 입장을 청취했다.

회의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혜정 스님은 감사 거부와 관련해 "연기를 요청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응이 맞다"며 참회하고 감사 수용 의사를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혜정 스님의 입장 청취 후 "총무원장 스님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9월 1일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 징계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김내영 기자

진각종, 제59기 회당장학금 수여식
8월 19일 진각문화전승원서

진각종이 신교도 자녀 대학생 45명에게 회당장학금을 전달했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8월 19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진기 79(2025)년 제59기 회당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통리원장 능원 정사(회당장학회 이사장)는 장학증서 전달 후 "하루 3분이라도 진언명상으로 지혜를 얻으면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당부했다.

회당장학생들은 선서를 통해 "부처님의 은혜를 지혜로써 깨달아 지혜와 자비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진각행자로서 본분인 희사와 염송으로 지혜를 밝힐 것"을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김준혁 의원 "조계종, '금강산 종' 반환에 관심을"

일제에 의해 중국으로 반출
인천시립박물관 종과 '교환'
"남북관계 개선 물꼬" 기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반출된 '금강산 종' 환수에 종단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8월 19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금강산 종'의 역사적 의미와 환수 필요성을 설명했다.


8월 19일 진우 스님을 예방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이 반출한 '금강산 종'.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강산 종'은 고려 말 태조 왕건의 금강산 참배를 기념해 원나라 기황후가 조성했다. 〈유점사본말사지〉에도 1346년 자정원사 강금강이 원나라 황제의 명으로 종을 주조해 내금강 배점 고개 위에 종각을 짓고 종을 안치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나 '금강산 종'은 1906년 일본 조동종 아베 스님에 의해 중국으로 반출돼 현재는 중국 대련 여순박물관 1층 로비에 전시 중이다. 범종 중 규모가 크고 종신(鐘身)에 산스크리트어가 새겨져 있는 등 예술적 가치가 높아 중국 국가 1급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김 의원은 환수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소장한 중국 범종과 '금강산 종'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금강산 종'과 인천시립박물관의 원·명·청 시대 범종 중 1점을 교환함으로써 중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고, '금강산 종'은 원래 자리인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계종도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금강산 종'이 환지본처 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가 될 수 있겠다"며 "오는 10월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니 중국 불교 측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만당 종사여, 해탈열반으로 나아가길”

8월 21일, 만당 스님 49재 봉행
사부대중 1000여 명 백양사 운집
헌화·헌다로 추모…생전 법문 시청
“만당 스님 향 남아 불국정토 장엄”

장성=김내영 기자 ·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만당 종사, 차 한잔하시게”라며 추모의 말을 건넸다.

“20대 젊은 나이로 처음 불갑사를 찾았던 만당 스님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늘 제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던 스님, 왜 먼저 떠나셨습니까. 제가 떠난 뒤에도 속환사바 하셔서 불갑사에서 중생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참 많이 그립습니다, 스님.” (불갑사 신도 조기주 불자, 화엄장·93)

한평생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며 종단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만당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재가 출가본사인 장성 백양사에서 엄수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8월 21일 경내 교육관에서 ‘취암당 만당 종사 49재’를 봉행했다. 49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의원 보선·암도·성오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진공·명공·원진·정연·정찬 대종사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꽃은 져도 향기는 남고, 바람이 눈 앞을 가려도 길은 이어지듯 만당 종사의 발원도 산승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살아 있다”며 “만당 종사는 불갑산의 상사꽃처럼 피어났다가 쌍계루 앞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대의 향기는 고불매 향처럼 남도처처(南道處處)에 남아 불국정토를 장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향 법석에 모인 공덕이 사부대중에게 회향돼 안으로는 심법(心法)을 맑히고 밖으로는 중단 중흥의 밑거름이 되길 발원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우 스님은 “만당 종사여, 차 한잔하시게”라며 애틋한 추모의 말을 건넸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만당 스님이 남긴 치열한 삶과 정진, 전법교화의 가르침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주경 스님은 “오랫동안 홀로 짊어졌던 무거운 인연의 짐을 훌훌 내려놓으시고, 생사일여(生死一如) 해탈열반(解脫涅槃)의 길, 안양(安養)의 정토(淨土)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49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만당 스님은 뛰어난 지혜와 품성으로 늘 어려움 앞에 해답을 제시해 주셨다”며 “오늘 수많은 스님이 추모하는 모습을 보니 참 훌륭한 삶을 사셨음을 알겠다. 꼭 속환사바해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상좌대표 덕상 스님은 “스님이 입적한 지 49날이 지났지만, 어느 곳을 돌아봐도 스님의 미소가 가득하다”며 “스님의 자비심과 큰 뜻을 본받아 불국정토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불갑사·관음사 연합합창단이 조가 ‘빛으로 돌아오소서’로 만당 스님의 극락왕생과 속환사바를 기원했고, 법석 곳곳에서는 눈물로 스님을 추모하는데 마음을 함께했다. 이후 봉송과 소지의식으로 49재는 마무리됐다.

태고종, 태평소 보존회 발족한다

9월 29일 창립 준비회의 개최
작법에 필수지만 체계화 미흡
지허 스님 “전승 체계 마련 초석”



태평소(太平簫)는 영산재 등 불교 전통의식에서 작법과 이운에 필수적인 악기지만 그간 체계적 교육과 전승이 이뤄지지 않았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평소 의식곡의 전승 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산하에 ‘벽응 스님계(係) 태평소 보존회(이하 태평소 보존회)’를 설립한다.

벽응 스님(1909~2002)의 태평소 음악(대취타, 염불, 천수, 요잡)은 영산재나 예수재, 수륙재 등 태고종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시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벽응 스님 입적 후 태평소 음악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태고종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사진)은 19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평소 보존회 설립과 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허 스님은 벽응 스님의 계보를 잇는 태평소 음악인 ‘불교대취타’ 전승자로, 올해 3월 ‘태고명인’으로 지정됐다.

지허 스님은 “불교전통의식은 악가무(樂歌舞)가 어우러진 종합예술로, 가(歌)에 해당하는 범패와 무(舞)에 해당하는 바라·나비 작법은 엄격히 전승되는 반면, 유일한 멜로디 악기인 태평소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벽응 스님의 태평소 음악세계를 조명해 체계적인 복원과 전승에 나서기 위해 보존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고종은 오는 9월 29일 태평소 보존회 창립을 위한 1차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창립 법회는 오는 11월 중 봉행할 예정이다.

지허 스님은 “보존회 출범 후 학술대회를 열어 역사적·이론적 토대를 갖추는 한편, 지속적인 교육과 시연을 통해 전승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수덕사, 첫 본사 출가학교 ‘나는 누구인가’ 개설

조계종 총무원 주최 · 수덕사 주관
9월 12~21일…교구본사 첫 운영
공동생활 가능한 17~65세 모집
9월 5일까지 온라인 상시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출가절벽’ 해소 대응책으로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단기 출가학교를 본격 시행키로 한 가운데,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본사 중 처음으로 단기 선출가학교를 운영한다. 교구본사 차원의 출가학교의 첫걸음인 만큼 출가자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수덕사는 9월 12~21일 9박 10일 간 경내에서 ‘수덕사 단기 禪출가학교-나는 누구인가’를 실시한다.

‘단기 선출가학교’는 스님이 되기 위해 처음 출가했을 때 겪는 행자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교구본사가 주관하는만큼, 단순 사찰체험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총림의 예불, 발우공양, 운력 등 기본 일상생활과 염불, 참선, 간경의 기본 수행이 진행된다. 삭발은 희망자에 한하지만 되도록 권장한다.

수덕사는 열흘 간의 출가살이에서 공간적 여건과 강사 확보 등을 고려해 대중생활이 가능한 65세 이하 남녀 각 10명을 선발한다. 9월 5일까지 수덕사 홈페이지(www.sudeoksa.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79 단기선출가학교 담당자 앞)과 이메일(sudeaksa@hanmail.net)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과 건강검진서도 동봉해야한다.

1차 서류 합격자는 9월 7일 발표하며 전화 및 화상으로 2차 면접 후 최종합격자는 9월 10일 최종선발한다. 심사 기준은 심신이 건강하고 출가학교 참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참가비는 40만원이며 고등학생·대학생은 전액 무료지원한다.

청규상 수행기간 중 외출, 전화 사용 등 일체 외부와의 연락이 금지된다. 청규를 어겨 대중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는 그에 따른 처벌(참회와 경책)이 이뤄지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퇴방조치된다.

수덕사 측은 “수덕사는 경허·만공스님 참선수행도량”이라고 강조하며 “사람이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다는 뜻은 나를 알아 얻는 데 있다는 만공선사의 말씀을 바탕으로 단기 선출가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7월 10일 직지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조계종 출가학교 시행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에 올해는 수덕사를 시작으로 제21교구본사 송광사에서 9~10월 경 행자체험 형식의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조계종은 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10개 권역 교구본사에서 출가학교를 순차적으로 개설해 운영해 출가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041-330-7700 임은호 기자

“동국인의 자부심으로 사회 첫발”

동국대, 가을 학위수여식
학 · 석 · 박사 1846명 학위


윤재웅 동국대 총장이 성적우수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8월 21일 남산홀에서 ‘2025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위수여 대상자는 학사 1008명, 석사 717명, 박사 121명 등 총 1846명이며 성적우수자 및 공로상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윤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은 이미 건학이념과 함께 역량을 갖춘 동국인”이라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동국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모교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따뜻한 쉼터가 될 것”이라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학교법인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졸업이라는 결실을 맺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자비, 성찰과 발전을 멈추지 않는 정진까지, 동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고스란히 담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참된 동국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는 이번 가을 학위수여식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학위수여식’을 주제로 졸업생 대표의 소감과 동문 선배의 축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신중일 기자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법당서 간단 견본과
기존 법당 시설과 스님 자신이 양손 마이크로 성능 비교 테스트시
놀라운 성능 차이를 확인 후 모든 시설상담 소리비교 비용 한잔!
최신디지털앰프 : 다루기 1초 / 고장없음 / 현 귀 법당 기존시설가의 1/3 가격차 확인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별도 : 야외방생용 판매)
충전식 / 출력 3kw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40평 가능
야외사용 겸용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도선사 '금강경 독송' 3년 정진결사 회향

2022년 입재…올 8월 21일 회향
1만 8천여 명…매달 1000명 동참
청담 스님 정법불교 계승 발원
태원 스님 "내면 성찰 자신 변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도선사가 주지 태원 스님 취임과 함께 시작했던 '우리말 〈금강경〉 21일 독송 기도'를 제33차를 끝으로 원만 회향했다. 태원 스님은 도선사의 중흥을 발원하며 한번도 빠짐없이 집전을 맡았다.

호국참회기도도량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가 주지 태원 스님의 원력 아래 2022년 1월 1일 입재했던 '우리말 〈금강경〉 21일 독송 기도'를 제33차를 끝으로 원만 회향했다. 도선사 중흥을 발원하며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도선사는 8월 21일 경내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서 '우리말 〈금강경〉 21일 독송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도선사의 '〈금강경〉 21일 독송 기도'는 2021년 9월 주지로 부임한 태원 스님의 원력에서 시작됐다.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 청담 스님(1902~1971)의 정법불교 유지를 계승하고 호국참회 관음기도도량이라는 도선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태원 스님은 부임과 동시에 정진을 실천에 옮겼다.

태원 스님과 불자들은 매월 양력 1일부터 21일까지 오전 10시 호국참회원 3층 강당에 모여 '〈금강경〉을 독송했다. 기도 시간에는 강당 좌우측 상단 스크린에 동참 불자들의 바람을 축원하는 글을 송출해 신심을 고양하기도 했다.

그렇게 3여 년이 흘렀고 태원 스님은 다음 달 중순 주지 퇴임을 앞두고 있다. 주지 임기 시작과 끝을 〈금강경〉 독송과 함께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도들이 있었다.

태원 스님은 회향법회에서 먼저 처음 기도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의 주변 반응을 전하며 "'큰절 주지가 다른 업무도 많은데…'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고 웃었다. 이어 "부끄럽게도 출가 후 여러 소임을 맡으면서도 진정 부처님을 시봉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게을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내면 성찰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삼아야겠다는 생각에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기도를 시작한 후 스스로가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힘들 때마다 목탁을 들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끔 도와준 신장은 바로 도선사 신도들"이라면서 "함께하는 독송 기도였던 만큼 회향하는 복전을 두루 나누게 된 것에 마음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곧 퇴임을 앞둔 태원 스님은 주지로 함께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회상하기도 했다. 2022년 코로나19로 사찰 운영과 기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 2023년 자승 스님의 원적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일, 2024년 청담 대종사 사리탑 불사 중 겪었던 갈등, 올해는 어깨를 짓누르는 통증까지. 스님은 "몇 번이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법당에서 기도하는 신도들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다"면서 "함께한 모두, 인연과 인과를 믿고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부처님 가피로 스스로의 변화와 함께, 주지로 올 때 세운 원력들이 차근차근 결실을 이루게 됐다"면서 "청담 스님 사리탑 정비불사, 사천왕문 주변 땅 한 평 불사, 진입로 열선 공사 유치 등 불사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금강경〉 기도 덕분"이라고 전했다.

3년 간의 〈금강경〉 독송에 함께한 연인원은 1만 8000여 명. 평균 매달 1000여 명이 기도에 동참했다. 태원 스님은 이날 회향법회에서 신도들이 3년 간 수지한 〈금강경〉에 가피 도장을 하나하나 찍어주며 아쉬움을 달래는 한편, 끝없는 수행을 당부했다. 또 연비 도장과 함께 단주를 나누며 회향의 기쁨을 나눴다.

"하루 동안 수행자로"

봉녕사 팔관재계 법회, 55명 동참
선명상 · 108배 · 공덕행 등 수행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8월 16~17일 경내 일원에서 '제2회 팔관재계 수행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팔관재계는 사찰에서 하루 동안 8가지 출가계를 지키며 해탈 열반의 인연을 심는 수행법이다. 일체 음행을 금하고 오후불식으로 음욕과 식욕을 끊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1박 2일간 열린 법회에는 재가불자 55명(우바새 17명·우바이 38명)이 참석해 출가자의 삶을 경험하며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5월 총 44명이 동참한 첫 법회보다 남성 참가자가 6명에서 17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주지 진상 스님은 "부처님은 태양처럼 온 우주를 똑같이 비추신다. 우리 역시 깨달음을 얻으면 태양과 같은 능력을 지니지만, 마음속에는 번뇌의 구름이 가득해 이를 걷어내야 한다"며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방법이 곧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진상 스님은 이어 "팔관재계는 나를 변화시키는 씨앗이다. 그냥 던져 놓은 씨앗이 잘 자라지 않는 듯, 깊이 자리 잡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수행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큰 공덕이니 주변의 많은 이들이 팔관재계 수행법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들은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 휴대폰을 반납한 후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의 팔관재계 특강, 팔관재계 수계식, '우바새계경' 독송, 걷기 명상, 선명상, 108배, 풀 뽑기 공덕행, 수행여정 나누기 등의 정진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김내영 기자

수행의 공간, 스크린으로 피어나다

날마다좋은날, 8월 23일~9월 20일
'2025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2025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가 8월 23일~9월 20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증명 아래 정원주 이사장이 조직위원장, 송일곤 감독이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세계일화(世界一花, One World One Flower)'는 '온 세상이 하나의 꽃'을 의미한다.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전 인류의 삶에 고르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5회차를 맞은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에는 장편영화 '총을 든 스님' '문경' '스노우 레오파드' '성스러운 돌' '매트릭스1'을 비롯해 전 세계 111개국에서 총 1637편이 출품됐다. 인도, 이란, 미국, 중국, 이탈리아, 튀르키예,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했으며 이 중 예심과 본심을 거쳐 선정된 최종 20편(16개국)의 작품이 본 영화제 단편 컬렉션에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를 세계와 나누기 위해 사찰음식 체험과 템플스테이, 요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지역순회상영회도 함께 마련됐다.

전국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가수 하림, 배우 윤진서 등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하며 9월 19~20일 조계사에서 이틀 간 상영회를 끝으로 영화제는 회향한다.



송일곤 집행위원장은 "세계일화의 정신 아래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예술이라는 언어로 풀어내고자 노력했다"면서 "드라마, 코메디, 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영화제를 지향한다"고 올 영화제를 소개했다.

정원주 조직위원장은 "올해 영화제는 권역별 주요 사찰과 연계해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많은 불자, 대중과 함께하고자 준비했다"면서 "영화제를 통해 불교가 대중에게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많은 이들이 위로를 넘어 통찰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홈페이지(oibff.com) 참조. 02-733-7277

임은호 기자

"올 가을, 전국사찰노래자랑서 만나요"

연예인전법단, 하반기 활동 공유
불자 화합·불자 연예인 발굴 목표



지난해 가을, 연예인전법단이 기획부터 연출, 심사까지 행사 전반을 주관하며 화려한 무대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던 '전국사찰노래자랑'이 올해 또다시 불자들을 만난다.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우봉 스님)은 8월 20일 서울 종로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활동 계획을 밝혔다.〈사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국사찰노래자랑. 연예인전법단은 지난해 서울 화계사에서 성공적인 축제 마당을 펼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다수 사찰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특히 신도들 간 화합은 물론,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자리이자 지역의 '끼'있는 청년 불자 가수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9월까지 참여 사찰의 접수를 받아, 10~11월 2개월 간 축제의 장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국사찰노래자랑에 앞서 9월 22~24일에는 서울 화계사에서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를 연다. 또 9월 중 불자 연예인 수계 법회와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연예인 불자들만을 위한 불교대학도 준비 중이다. 화계사 불교대학의 학사 운영 커리큘럼과 학사관리를 통해 불자 연예인들이 제대로 된 불교 지식을 쌓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이밖에도 10월에는 화계골빨래터 노래자랑이, 11월에는 국립재활원 요양환우를 위한 음악회가 준비됐다. 12월에는 연말 디너쇼와 올해의 연예인 대상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노래자랑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연말 결선대회도 구상하고 있다.

임은호 기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50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인도 달라이라마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13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7일 출발~11월08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399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인도 달라이라마 친견 및 아잔타석굴 9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남인도 아잔타석굴,산치대탑등 순례 일정입니다.
10월31일 출발~11월08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산치대탑-델리-다람살라-달라이라마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9만원 (보시금30만원 별도)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 일정으로 돈황석굴과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10월10일~10월19일(9박10일)
■ 일정: 인천-서안·법문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끝)·돈황석굴-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9월10일 출발~9월15일 도착
11월25일 출발~11월30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 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중국 4대 석굴중 하나인 대족석굴, 낙산대불등 사천성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2일 출발~10월26일 도착
■ 일정: 인천-성도-대족석굴-낙산대불-3,077미터 아미산 케이블카 등정-성도-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성지순례 10일
10월23일 출발~11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11월30일 출발~12월09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11월26일 출발~12월03일 도착(8일간)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

“K-사찰음식 지속가능성, ‘교육’서부터 시작”

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8월 19일 고궁박물관 강당서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기념 음식학 석학, 셰프 등 참여해 美 CIA “사찰음식 교육 추진” 사업단 “인류유산 등재 계획”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8월 19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은 양종집 CIA교수가 종합토론에서 발언하는 모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본연 스님


브렌던 R. 월시 학장


적문 스님


양종집 교수


토마스 두보이스 교수


케한 딩 강사


트레이시 리우 연구원


공만식 교수


파올로 코르보 교수

한국불교만의 독창적 식문화인 ‘사찰음식’이 지속가능한 식문화로 자리잡고,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근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은 8월 19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음식문화로서 사찰음식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5개국 6명의 음식학 석학과 유명 셰프가 참석해 △세계 음식학계의 현황 △사찰음식의 위치 △대안음식문화로서 사찰음식의 가능성 등을 주제발표하고 토론을 펼쳤다.

사찰음식, 지속가능한 식문화

이날 음식학 석학과 셰프들은 지속가능한 식문화로서 사찰음식을 조명하고, 사찰음식 보급과 세계화의 해법은 ‘교육’에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 양대 조리교육기관 중 하나인 미국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인 양종집 아시아음식학부 교수는 교육 커리큘럼에 사찰음식 과정을 개설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양 교수는 재직 중인 CIA의 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찰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CIA의 학생과 교수들은 한국 사찰음식에 대해 처음 들어 보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대부분 사찰음식에 대해 알고 싶고,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처럼 한국 사찰음식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배움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한국 사찰음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요인이라는 게 양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CIA 커리큘럼에 사찰음식 과목을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 교수는 “현재 활용되는 〈한식〉 온라인 교재 안에 ‘사찰음식’이라는 소주제가 있다”면서 “한국에서 사찰음식을 전수하는 전문가들과 협력해 CIA에서도 그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찰음식의 지속가능성은 꾸준하고 체계적인 기초 교육에 기반한다”면서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함께 참석한 CIA 학장 브렌던 R. 월시(Brendan Walsh) 셰프도 축사에서 사찰음식을 교과 커리큘럼에 포함할 의지를 보였다. 월시 학장은 “현대 식문화에 산적한 문제를 생각할 때 사찰음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찰음식을 CIA 교과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사찰음식이라는 보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파올로 코르보(Paolo Corvo) 이탈리아 미식과학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음식문화 식문화의 새로운 동향’을 통해 슈퍼푸드, 노블푸드 등 지속가능한 식문화로서 대안음식의 세계 동향을 소개했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형평성, 자연환경의 회복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그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전통 요리, 슬로우 푸드나 한살림 같은 초국가적 운동을 통해 음식과의 관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르보 교수는 “이제 먹거리 교육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도구”라며 “학교·가정·지역사회·기관에서 시민 의식과 사회적 역량을 길러 책임감 있게 요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삼덕(三德), 사찰음식 조리철학

기조강연자로 나선 사찰음식 명장 적문 스님(평택 수도사 주지)은 ‘사찰음식의 정신’ 주제 강연에서 사찰음식의 정신과 조리철학 등을 소개했다.

적문 스님은 부처님의 정각(正覺)과 열반이 공양과 연관돼 있음에 주목했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고행하던 부처님은 최소한의 영양 보충을 위해 수자타에게 유미죽을 공양 받고 깨달음에 이르렀다. 정각 이후 45년을 중생교화에 여념이 없던 부처님은 열반 하루 전 대장장이 춘다에게 ‘전단나무 버섯요리’를 마지막 공양으로 받았고, 이후 쿠시나가라 사리쌍수에서 열반에 들었다.

적문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공덕이 있는 공양을 ‘정각 직전에 올리는 공양’과 ‘열반에 들기 전에 올리는 공양’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사찰음식은 참된 삶과 죽음을 관조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건강한 음식을 생활 속에서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찰음식의 조리철학으로 〈치문경훈〉 ‘장로자각선사귀경문’의 경구를 예로 들며 △청정 △유연 △여법이라는 ‘삼덕(三德)’의 원칙을 제시했다.

적문 스님은 “청정의 조리원칙은 인공조미료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청정한 채소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유연의 조리원칙은 수행자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부드럽고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법의 조리원칙은 불법승 삼보에 공양하는 음식을 직접 조리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을 갖고,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한 애정을 주는 것처럼 조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찰음식 역사적 궤적 조명

이와 함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사찰음식의 역사적 궤적을 조명하는 주제발표도 이뤄졌다. 토마스 두보이스(Thomas David DuBois)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중국 종교적 채식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중국 역사 안에서 불교적 채식주의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살폈다.

‘중국불교 사찰 채식에서 차와 치료식’을 발표한 케한 딩(Kehan Ding) 영국 에딘버러대 철학과 강사는 중국 사찰 내 채식 대중공양을 소개했다.

트레이시 리우(Tracy Liu)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글로벌 창의적 사고 연구소 연구원은 ‘종교적 수행에서 탈종교적 실천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 사찰 중심의 채식 실천과 도시의 풀뿌리 채식운동을 분석했다.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조선시대 불교음식과 왕실음식의 음식적 특징과 음식철학’을 통해 조선시대 불교음식과 왕실음식의 차이를 비교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기념식에서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무국장 본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의 원형 보전과 전승을 위한 학술연구,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활동 등 사찰음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오늘 학술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제적 학술교류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사찰음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관사 콩국수에 눈물…사찰음식 매료된 세계 석학들

국제학술심포지엄 참가자가 만난 사찰음식

토마스 두보이스 교수
“좋은 재료에 성심 깊은 조리 고급 레스토랑서 만날 수 없어”

파올로 코르보 교수
“사찰음식, 인생의 전환점 이탈리아 가서 비교 연구”

양종집 교수
“사찰음식 철학 등에 감동 지속적 교육으로 확장돼야”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백양사 천진암에서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에게 사찰음식을 배우고 있다.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서울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명장 계호 스님과 함께 맷돌을 돌려보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가끔 음식이 너무 압도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진관사에서 만난 콩국수가 그랬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주최 사찰음식 국제학술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토마스 두보이스 베이징사범대 교수는 8월 18일 서울 진관사에서 콩국수를 먹고 감격의 눈물이 흘렸던 이유에 대해 “내 영혼 깊숙이 와 닿았다”고 말했다.

그가 진관사 콩국수에 매료된 가장 큰 이유는 ‘순수함’이다. 두보이스 교수는 “처음 콩을 맷돌에 갈 때부터 인상적이었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모든 것이 감각적으로 다가왔다”며 “순수하고 완벽한 유기농 재료에 스님의 성심 깊은 조리는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정말 희귀한 경험이었고 정말 ‘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요리’임이 느껴졌다. 이는 세계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맛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지속가능한 음식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파올로 코르보 이탈리아 미식과학대 교수는 사찰음식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발견했다”고 술회했다.

그는 “사찰음식을 접하며 음식이 농업, 역사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사찰음식과의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이다. 사찰음식이 보여 준 정신과 철학을 이탈리아 대학에 가서도 비교 연구해 보고 싶다”고도 했다.

자신의 연구분야인 ‘지속가능한 식문화’와 사찰음식의 접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코르보 교수는 “지역에서 각자가 재배한 음식을 조리하는 사찰음식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삶, 후속 세대가 삶의 질을 이어 갈 수 있게 해 준다. 이것이 지속가능성의 본질이며 진정한 생태적 전환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좋은 음식’을 선택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사찰음식은 이런 책임의식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식 전환을 통해 개인의 변화를,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코르보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지속가능한 음식 교육’을 도입해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교육이야말로 지속가능성이 이뤄질 수 있는 근본”이라고 밝혔다.

양종집 미국CIA 아시아음식학부 교수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사찰음식 지속가능성과 세계화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감동’이었다. 이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면서 “무엇보다 사찰음식에 내재된 철학과 음식과 재료를 바라보는 태도 등은 서구인들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찰음식 철학과 사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보다 지속적인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며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관련 연구와 교육을 이어 가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CIA에도 사찰음식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관련된 연구를 공유했던 오늘의 경험을 미국 CIA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교육을 통해 한국의 사찰음식을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사찰음식 홍보는 저절로 이뤄질 것이고 세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사찰음식 국제학술심포지엄 참가자들은 8월 16~17일 장성 백양사에서 템플스테이와 백양사 천진암에서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시연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은 수행의 에너지원이자 산과 자연에 의지한 삶의 지혜이다. 계절의 제철 재료를 활용한 조리법은 1600년 동안 수행자와 수행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18일 서울 진관사에서는 사찰음식 명장 계호 스님과 직접 맷돌을 갈아 가며 콩국수를 만들기도 했으며, 19일에는 사찰음식 교육관인 종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을 찾아 전시 관람과 강좌 참관 등을 통해 사찰음식 교육 현장을 확인했다.

신중일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바라밀선원, 라오스 오지에 초등학교 건립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8월 16일 나두앙 마을서 개교식
3년만 결실…첫 해외 교육 불사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이 8월 16일 라오스 방비엥 나두앙에 '바라밀선원 초등학교'를 개교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주지 인해 스님, 통도사 강주)이 라오스의 오지 마을인 방비엥 나두앙에 초등학교를 건립했다.

바라밀선원은 8월 16일 라오스 현지에서 '나두앙 바라밀선원 초등학교' 개교식을 봉행했다. 이번 불사는 2022년부터 시작된 '108암자 순례기도'와 '금강경 천일기도'를 통해 모인 원력이 3년 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바라밀선원의 첫 해외 교육 불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두앙은 소수민족인 몽족 불자들이 모여 사는 오지 마을이다. 그간 어린이들은 천막 아래서 수업하거나 비가 오면 휴교를 반복해야 했다. 바라밀선원은 지난해 방비엥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KCP종합건설과 함께 신축 공사를 진행해, 8개 교실과 교무실·강의실·해우소 등 4개 동 규모의 학교를 완공했다.

학교는 수업뿐 아니라 마을회관, 임시 보건소 등 주민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현지 주민들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건물"이라며 환영했다.

이날 개교식에는 인해 스님을 비롯해 서울 만성사 진만 스님, 덕암 스님, 광법 스님, 김미수 수트래블 대표, 한선 허부수 포교사회장, 김종환 신도회장, 굿따리 방비엥 교육청장, 푸웡 짠펭싸이 교장, 108암자 순례단과 현지 학생·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현판 제막과 상징패 기념식,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인사말, 법어, 축사, 어린이들의 축가와 꽃목걸이 환영식으로 진행됐다. 바라밀선원 신도들은 가방과 학용품을 학생들에게 선물해 기쁨을 더했다.

인해 스님은 법어에서 "작은 보시와 정성이 모여 오늘의 결실을 이루었다. 학교 건립은 곧 마을에 도량을 세우는 불사와 같다"며 "교육만이 세상을 바꾸고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라오스의 아이들이 불법의 씨앗을 품고 성장해 이 나라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이 원력이 이어져 제2, 제3의 학교가 세워지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신도회장은 "2022년 화순 운주사에서 시작한 108암자 순례 원력이 천일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개교식을 맞게 돼 감격스럽다"며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굿따리 방비엥 교육청장은 "아이들의 배움터를 마련해 준 한국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학교 건물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어린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바라밀선원은 이번 라오스 초등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캄보디아와 네팔 오지 마을에도 제2·제3의 학교를 건립한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33관음성지순례'를 이어가며 불사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개교식 후 책가방과 학용품을 받아든 학생들은 행복한 미소로 답했고, 마을 주민들은 전통 축원 의식을 올리며 학교의 앞날을 축복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생전예수재 회향

8월 19일, 설법전 및 경내 일원
"청정심 회복해 중생에 회향"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8월 19일 설법전과 경내 일원에서 을사년 생전예수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예수재는 지난 7월 2일 입재해 매주 수요일 불공·법문·천도재가 이어졌다. 7월 2일 조계종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의 법문을 시작으로 △3재(7월 22일) 법산 대종사(조계종 법계위원장), △5재(8월 5일) 덕문 스님(통도사 율주)이 법문을 했다.

회향 법회는 설법전에서 신중작법, 예수작법, 상단·중단·하단 도권공 및 시식 순으로 엄숙히 진행됐다. 작법은 통도사 염불원 스님들이 전통의식의 원형을 충실히 재현해 불자들에게 신심을 더했다. 이어 신도들은 금강계단 앞에 모여 사리탑을 돌며 봉송 의식을 갖고, 소대로 향하며 법회를 원만히 회향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회향 법어를 통해 "오늘 행사를 위해 전통 작법을 재현해준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염불원 대중 스님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생전예수재의 핵심은 탐진치 삼독을 여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청정심을 회복하며, 그 힘으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 것"이라며 "동참한 공덕주 한 분 한 분에게 큰 인연의 복덕이 회향되기를 발원한다. 또한 이번 공덕을 원력 삼아 더욱 정진해 우리 개인과 사회가 불국토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태조 왕건 사찰 천흥사지' 사적 지정 추진된다

천안시, 8월 14일 학술대회
고려 왕실 사찰 가치 재조명



천안시는 8월 14일 천흥사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고려 태조 왕건의 사찰 천흥사지'를 개최했다.

천안시가 서북구 성거읍 천흥사지의 '사적' 지정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8월 14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국중세고고학회와 '고려 태조 왕건의 사찰 천흥사지'를 주제로 '천안 천흥사지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천안박물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 성과를 토대로 천흥사지의 고고학적·미술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유산 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천안시사암연합회장 도언 스님(만수사)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지역 단체장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장기승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민정희 연구실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천흥사지는 보물 2건(오층석탑과 당간지주)과 국보 1건(동종)을 간직한 고려 왕실 사찰"이라며 "84m에 이르는 대형 건물지와 가구식 계단, '천흥사' 명문기와 등 발굴 성과는 역사성과 진정성을 입증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도 "고려 초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임이 발굴로 확인됐다"며 "학술대회를 계기로 천흥사지가 고려의 상징적 유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사적 지정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다섯 개 주제가 다뤄졌다. 조원창 박사(국가문화유산연구원)는 천흥사의 창건 시기와 사역 범위를 고찰하며 고려 태조 시기 불교 정책과 왕실 후원의 배경을 분석했다. 엄기표 교수(단국대학교)는 오층석탑과 당간지주의 조형적 특징과 제작기법을 비교 연구했고, 김수현 학예연구사(고양시청)는 천흥사 동종의 제작 배경과 음향·문양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승민 대표(건축문화고수트디오)는 사찰 조영 배경과 중문을 통한 공간 구성 변화를 설명했으며, 홍영의 교수(국민대학교)는 천흥사의 고고미술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지병묵 전 국립문화연구원을 좌장으로 배철한 교수(울산대학교), 신용철 학예사(양산박물관), 이용진 박사(동국대학교), 박인홍 소장(국토문화유산연구원), 강호선 교수(성신여자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간지주가 오층석탑 북쪽에 위치하는 독특한 구조와 천흥천과의 관계, 오층석탑의 제작 시기, 당간지주의 재질과 구조, 국보 동종의 역사적 의미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아울러 태조 창건설의 문헌적 근거 부족, 동종 명문(1011년)을 기준으로 한 건축·유물 조성 시기 연구, 명문 불상·지도·고문헌 자료 통합 연구를 통한 학문 간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미소원 청년들, "독립영웅을 기억합니다"

광복 80주년, 개금종합복지관과
보훈가족 찾아 전한 감사의 시간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 지역 청년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는 행사가 마련됐다.〈사진〉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과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다겸)는 8월 16일 '영웅을 기억하는 복지관'을 공동 주최하고, 독립유공자 및 한국전쟁 무공수훈자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소원 청년회가 500만원의 기금을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류강렬 관장을 비롯해 미소원 청년회 회원들은 부산진구와 동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직계자녀 20세대와 한국전쟁 무공수훈자 10세대 등 총 30세대를 직접 방문해 '나라지킴이 KIT'를 전달했다. KIT에는 영양제와 식료품 등 약 17만원 상당의 생활 물품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찾는 어린이들이 직접 쓴 감사편지가 포함됐다.

이다겸 회장은 "처음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분들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분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강렬 관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국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부터 이어 온 '영웅을 기억하는 복지관'을 앞으로도 지속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공심으로 함께하는 도량, 화엄사의 미래 100년”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새로운 변화, 미래로 100년’ 비전
문화로 여는 포교, ‘공심’으로 확장
보제루 · 사찰정원 유산 활용 모델
‘생활 명상’ 도입으로 포교 활성화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 “대중과 함께 ‘전통의 힘’ 위에 ‘새로운 변화’를 쌓아 ‘미래로 100년’을 준비하겠다”며 향후 4년의 교구 운영 방향과 포교 전략을 발표했다.

화엄사는 8월 20일 범음료에서 ‘새로운 변화, 미래로 100년’을 주제로 우석 스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국장 우봉 스님, 기획국장 우승 스님, 재무국장 법문 스님, 사회국장 연우 스님, 포교국장 덕명 스님, 복지국장 우태 스님, 연수국장 성학 스님, 홍보국장 범정 스님, 교육국장 선타 스님 등 국장단이 배석했다.

우석 스님은 모두발언에서 “화엄사는 연기조사 창건 이래 1500년을 이어온 도량으로, 정화불사 이후 도광·도천 두 큰스님의 발원과 회향, 그리고 후학들의 화합이 오늘의 가풍을 이루었다”며 “이 아름다운 전통을 현대의 언어로 계승하겠다”고 했다.

이날 우석 스님은 △교구 원융화합 △본·말사 상생 △문화유산의 가치 확장 △사찰정원 체계화 △불교편람 제작 △아웃도어 템플스테이(가칭) △지역과의 소통 등 7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수행 도량의 본래 면목을 지키되,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소통과 치유의 기능을 덧입혀 ‘사부대중 모두의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로 다가서는 포교

‘화야몽(華夜夢)’ 등 문화 프로그램 강화에 대해 우석 스님은 “교리 전달만으로는 현대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문화적 접근이 위안과 평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색채를 30%, 문화의 색채를 70%로 배합해 종교적 공간 안에서 문화 활동을 펼치면, 불교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마음의 평정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젊은·힙한 불교’에 대해서도 역사적 맥락을 들어 답했다. 스님은 “한국불교 1600년은 시대와 더불어 존재해 왔다. 조선의 숭유억불로 산중에 들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공간성이 오히려 강점이 됐다. 대중과 함께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달랐고, 지금도 그렇게 변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화엄사가 100년, 200년 후에도 살아 있을 기준은 시주 규모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하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평안을 얻고 ‘여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마음, 저는 그것을 ‘공심(公心)’이라 부르고 싶다. 우리는 그 공심을 쌓는 일을 한다”고 밝혔다.

전임 주지 덕문 스님 시기부터 정착된 사계절 프로그램에 대해 “정초 기도와 홍매화 축제, 초파일·연등 장엄, 여름 ‘모기장 영화음악회’, 가을 화엄문화제까지 이어가되, 겨울 콘텐츠를 신규 편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월 ‘문화유산의 날’ 선포를 통해 문화유산 재능보유자의 시연·전시와 1년 회향식을 마련, ‘배우고 체험하는 유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유산 활용 새 모델 제시

우석 스님은 전남유형문화유산 보제루의 활용 방향도 설명했다. “과거엔 ‘활용=훼손’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활용을 통한 보전’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다만 액자 하나 걸기 위해 못을 박을 때도 법적 제약이 많다. 문화재위원·국가유산청과 협의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갤러리·문화거점으로 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에는 궁중정원은 있어도 ‘사찰정원’ 개념은 없다”며 “건축·조경·휴식이 어우러진 사찰형 전통정원 모델을 정립해 국민 누구나 쉬어 가는 힐링 공간으로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심 증장 방안에 대해선 전통 의례와 현대적 수행의 일상화라는 두 축을 제시했다. 스님은 “전통의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초 사천왕불공·24시간 기도, 초파일 연등 장엄, 백중, 동지 팥죽 나눔 등은 변함없이 지켜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현대인에게 맞는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수행함(기도함)’ 같은 휴대형 수행 키트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준비 중인 아웃도어 템플스테이의 방향도 귀띔했다. 스님은 “기존 템플스테이의 고정된 공간·형식을 벗어나, 자연 그 자체를 수행의 장으로 삼는 프로그램”이라며 “구체적 구성은 보완해 공개하되, 현대인의 일상과 자연을 잇는 수행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석 스님은 “화엄사가 중생의 아픔을 함께하는 공간, 문화가 숨쉬는 도량으로 존재하도록 ‘공심’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울산시 건축상 대상 수상


‘2025 울산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한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사진 제공=이한울

울산시 8월 14일 수상작 발표
“유기적 연결 통해 조화” 평가
‘문화도시 울산 거점’ 자리매김

울산 백양사(주지 지선 스님)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가 2025년 울산시 건축상 대상작에 선정됐다.

울산시는 8월 14일 시민과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주거, 공공, 일반, 새 단장, 신진 등 5개 부문 50개 출품작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기능성, 공공성 등을 종합 평가해 7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을 차지한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쿨트라건축 건축사사무소)는 경사지를 적극 활용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세련된 외관과 실내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설계로 공간의 흐름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인근 백양사까지 조망으로 끌어들여 자연·문화·역사가 어우러진 공간미를 완성했다.

심사위원회는 “공공성과 개방성이 뛰어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발길을 옮길 수 있는 문화도시 울산의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에는 △종하이노베이션 센터(원안 건축사사무소) △삼산해솔청소년센터(제이오에이 건축사사무소) △주전초등학교(건축사사무소 아이디에스) △케이지주차빌딩(디퓨전 건축사사무소) △미지의(아키텍케이 건축사사무소) △겹겹집(온 건축사사무소) 등 6개 작품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이번 수상 건축물에 동판을 부착하고,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9회 울산건축문화제’에서 수상작 모형과 사진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곡사 본·말사, 보살계 합동 수계법회

8월 29일 대광보전 금강계단서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가 8월 20일 대광보전 앞 금강계단에서 본·말사 보살계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사부대중 1200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거듭나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법석은 조계종 원로의원 지공 철웅 대종사를 증명 법사로 환성 스님(영평사 주지)이 전계대화상, 혜경 스님(마곡사 부주지)이 갈마아사리, 장곡 스님(보석사 주지)이 교수아사리를 맡았다. 자암 스님(봉서사 주지), 천산 스님(갑사 주지), 태진 스님(태고사 주지), 정덕 스님(무량사 주지), 성관 스님(신원사 주지), 종봉 스님(관촉사 주지), 법두 스님(성불사 주지)이 7증사로 올랐다.

보살계 수계법회는 출·재가가 함께 계율을 수지하고 보살행을 실천하겠다고 서원하는 법석으로, 안병권 6교구 신도회장과 이윤진 마곡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은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수지하며 일상에서 계행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주지 원경 스님은 “계를 받는 일은 번뇌를 씻어내는 맑은 샘과 같다”며 “오늘의 인연이 모든 불자에게 마음을 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에 연수 스님 선출

8월 14일 선관위 회의서… “교육 내실화 추진”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에 연수 스님(완주 봉서사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전북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4일 열린 회의에서 연수 스님을 종무원장으로 선출했다. 취임식은 오는 10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연수 스님은 당선 인사에서 “원로대덕 스님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교육사업을 내실화해 지역 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구 원로자문단 구성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교육 참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스님은 “법회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각 사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종무행정 서비스 도입 △전북영산작법보존회 활성화 △영산재 상설공연장 설립 검토 등도 추진한다.



연수 스님은 “각 사찰의 발전이 곧 전북교구의 발전”이라며 “원로 스님과 대중의 뜻을 받들어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고, 전북교구가 전통과 불교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수 스님은 법안 스님(논산 안심정사)을 은사로 출가해 선암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대전 백화사 주지, 지방종회의원,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 업무국장, 중앙종회 사무국장, 중앙종회의원 총무분과 간사, 종책자문위원회사무처장, 원로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승원 스님, 광복절에 장병 2300명 수계

8월 15일 호국연무사 연무관서



가평 백련사 주지 승원 스님이 광복절인 8월 15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연무관에서 군 장병 2300명에게 수계했다.〈사진〉

이날 수계대법회에는 백련사 대중스님과 가평사암연합회 총무 법광 스님(성불사 주지), 호국연무사 주지 혜총 스님, 군승 법사들, 백련사와 성불사 신도들이 함께했다.

승원 스님은 법어에서 “계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삶의 바탕”이라고 강조하며 사다리·등불·배에 비유해 계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마음과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때 국가와 사회에 당당히 이바지할 수 있다”며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했다.

한편, 승원 스님은 이날 호국연무사에 수계법회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총림, 도연당 법흥 대종사 49재 엄수

8월 18일 사자루서 봉행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8월 18일 경내 사자루에서 도연당 법흥(法興) 대종사의 49재를 엄수했다.〈사진〉

49재에는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을 비롯해 수좌 범종 스님, 유나 영선 스님, 회주 영진 스님, 주지 무자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해 평생 참회와 정진의 길을 걸어온 스님의 뜻을 기렸다.

문도대표 지원 스님은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은사 스님 49재를 추모해 주신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도들은 스님이 일생을 견지해 오신 수행 정신을 이어받아, 스님께서 그토록 참회와 발원을 하셨던 내용을 함께 실천하겠다”고 인사했다.

주지 무자 스님은 “큰스님의 49재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본·말사, 을사년 생전예수재 회향

8월 16일 대적광전 앞 법단서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본말사 합동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8월 16일 금산사 대적광전 앞 특별법단에서 봉행된 을사년 본말사 합동 생전예수재는 지난 7월 5일 입재해 매 7일마다 49일간 봉행됐다.

이날 생전예수재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어산 스님들의 집전으로 전통방식으로 봉행됐으며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주지 화평 스님 등 본말사 대중 스님들과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전북불교회관 회주 평상 스님은 회향 법문을 통해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닦아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으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재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바른 불자로 서원하며 삶을 정화하는 수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신도들이 더 큰 지혜와 자비심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맞는 수행을 하면 삶에서 장애가 사라지고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않게 된다”면서 지속적인 수행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산 해원사, 다문화 청소년 여름캠프

8월 15~17일, 경내 · 해운대서



베트남 사원 양산 해원사(주지 쩐 프엉 스님)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내와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제7회 다문화가정 청소년 여름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4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무더운 여름밤을 불교문화와 물놀이로 시원하게 밝혔다.

주지 쩐 프엉 스님은 “이번 캠프가 불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키우며 작은 부처님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국일암 인법당 '最古 입증' 상량문 발견

8월 19일 발견 현장 공개
1669년 쓰인 상량문 확인
옹정12년 중창문 등 발견
"한국 最古 인법당 증거"
경남도, 유산 지정 미온적
명법 스님 "지정돼야 불사"

합천=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이 8월 19일 국일암 인법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법당임을 입증하는 상량문을 공개하고 있다.

합천 해인사 국일암(감원 명법 스님) 인법당(因法堂)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법당임을 입증하는 상량문이 해체 수리 과정에서 발견됐다.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은 8월 19일 현장을 공개하며 "지난 7월 13일 국일암 인법당 해체복원 공사 중 '강희8년(1669년)'이라고 쓰인 상량문과 '옹정12년(1734년)'이 쓰인 중창문, 묵서 등 중요 유물들 발견됐다"고 밝혔다.

350여 년 동안 원형 그대로 보존된 채 발견된 이 문서는 국일암 인법당의 창건과 중창 연혁을 확정하는 희귀한 사료다. 상량문은 건축 당시의 지형과 구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벽암 각성(1575~1660) 선사의 주석처라는 역사적 맥락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불교사·건축사·민속사 연구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다.

발견된 상량문에는 '국일암(國一庵)'이라는 암자명이 벽암 각성 스님의 시호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화재로 소실된 뒤 제자들이 힘을 모아 다시 중창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또 동쪽 계곡물, 남쪽 연지, 서쪽 누각 등 당시 지형과 건축 양식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인법당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명법 스님의 설명이다. 발견된 상량문의 기록은 건축 연혁뿐 아니라 조선 후기 산사 공간 구성과 사찰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를 제공한다.

명법 스님은 "국일암 인법당 상량문은 '긴 상량문'에 해당하며 △서사(序詞) △본사(本祠) △육위송(六偉頌) △결사(結詞) △첨사(添詞)로 이뤄진 상량문의 완전한 내용 구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전해지는 사찰 상량문 가운데 이처럼 완전한 구성을 갖춘 상량문은 13점에 지나지 않고, 그중 18세기에 조성된 상량문이 발견된 건물은 대부분 보물로 지정됐다. 연대와 내용 구성이 이들 문화유산보다 앞서는 국일암 상량문은 그 자체로 문화유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목재 연륜연대 조사에서도 기둥·보·대공·반자 등 주요 부재가 1669년 벌채된 목재임이 확인됐다. 이는 상량문에 적힌 연대와 정확히 일치하며, 국일암 인법당이 17세기 건축 당시의 구조를 오늘날까지 유지해 왔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다. 또한 1972년 수리 당시 성원 스님이 상량문과 중창기를 봉인해 원위치에 다시 보관했던 사실이 확인돼 전통적 관리의 지혜와 정성이 함께 입증됐다.

이처럼 지역 문화유산 지정의 당위성이 확보됐음에도, 지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 현지 조사에서 "수리 이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명법 스님은 "대부분의 문화유산 지정이 해체 공사 없이 이루어졌으며, 해체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지정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된 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그럼에도 '해체와 수리를 끝낸 후에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입장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일암 인법당은 이미 문화유산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면서 "만약 도문화유산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에 따라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올해까지 국고사업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예산으로 환수해야 하기에 지정 여부에 대해 빠른 결정을 해 달라"고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에 요청했다.

"월탄 대종사, 미륵세상 구현 발원 선지식"

금오미룡문도회 · 법주사, 월탄 대종사 선양 학술대회

불교신문 · 한국불교학회 주관
대종사 수행 · 사상 등 조명해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를 역임하며 한국불교 중흥을 이끈 미룡당 월탄 대종사(1936~2022)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금오미룡문도회(문장 성운 스님)와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8월 21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룡당 월탄 대종사 선양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스님의 열반 3주기를 맞아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불교신문(사장 효명 스님)과 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가 공동 주관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보광 대종사(동국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월탄 스님의 수행·신앙·종단·사회관을 조명하며 스님의 면면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맞닿아 있음에 주목했다.

금오 스님을 만나 출가해 시심마(是甚麽) 화두를 받은 월탄 스님은 영축총림선원, 해인총림선원, 조계총림선원, 덕숭총림선원, 봉암사 선원 등에서 45안거를 성만했으며 사형 성림 월산 스님에게 인가를 받은 선사였다. 이



보광 스님이 '월탄 대종사 선양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같은 수행력을 바탕으로 월탄 스님은 '미륵용화정토' 구현을 발원했다.

보광 스님은 "월탄 스님이 전개한 미륵십선계운동은 이 땅을 용화정토로 만들어 미륵부처님의 세계를 발원하고 있다"면서 "사회관 역시 미륵정토를 꿈꾸면서 사회정화를 미륵십선계로 실천할 것을 지향했다. 이 같은 월탄 스님의 미륵정토의 실천과 자비사상은 제자들이 이어받아 실천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화운동 당시 '불법에는 대처승이 없다'며 할복했던 육비구 중 한 명이었던 월탄 스님에 대해서는 "이차돈의 순교에 버금가는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을 보여 줬다"고 보광 스님은 평가했다.

문도를 대표해 인사한 금오미룡월탄문도회 문장 성운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원)는 "월탄 대종사는 화두를 참구하는 선객(禪客)이시면서도 미륵신앙을 중시하셨고, 선과 교를 아우르는 폭넓은 안목으로 후학들을 이끄셨다"고 추모했다.

신중일 기자

'케데헌'의 나라엔 불교가 있다

한국관광공사 지역 홍보 영상
경상·전라 편, '사찰'이 주 무대
공개 한 달 만 1000만 뷰 돌파

"경주 불국사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본부네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요." "탑 앞에서 춤추는 게 이렇게 멋질 일인가!" "Korea is amazing!"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사찰을 주무대로 촬영된 한국 홍보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한국 홍보 영상 'Echoes of Korea' 시리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7월 검무(劍舞)로 경상도의 활기찬 에너지를 담은 '경상 편(Echoes of Korea-Where Energy Never Sleeps)'과 승무(僧舞)로 전라도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전라 편(Echoes of Korea-Where Beauty Moves Heart)'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8월 21일 현재 조회수가 947만 회, 1126만 회를 기록했다.

'경상 편'은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도깨비 탈을 쓴 무용수들이 불국사 대웅전과 자하문 앞에서 칼춤과 사자춤을 선보이는 역동적인 영상이 눈길을 끈다. 또 경주 창림사지를 배경으로 검무가 펼쳐지고 국립경주박물관, 김천 사명 대사 공원, 황룡사지 8층 목탑을 형상화한 경주 엑스포공원 등 불교문화유산이 차례로 소개된다.

'전라 편'은 해남 도솔암과 순천 선암사에서 펼쳐지는 승무로 시작된다. 승무는 무복(舞服)이라는 승복을 입고 추는 춤으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흰 장삼과 고깔, 붉은 가사가 특징이며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 사찰을 무대로 어우러지는 승무의 유려한 몸짓으로 우리나라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두 영상 모두 불교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1월까지 뉴욕 타임스퀘어를 비롯해 도쿄, 베이징, 방콕 등 16개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 전광판을 통해 이번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을 선보이고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20년에는 'Feel the Rhythm of Korea'를 주제로 서울, 부산, 전주의 홍보 영상 3편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을 합치면 총 2억6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여수령 기자



한국관광공사 'Echoes of Korea' 전라 편의 한 장면. 해남 도솔암에서 승무가 펼쳐지고 있다.

종교로 살펴보는 '전쟁과 평화'

불교평론 · 아시아종교평화학회 공동 심포지엄

불교평론과 아시아종교평화학회는 8월 29일 오후 1시 서울 공예박물관 교육동 강당에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종교'를 주제로 공동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찬수 아시아종교평화학회 부회장은 '전쟁의 이유, 종교의 자리, 명멸하는 평화'를, 박문수 우리산학연구소장이 '한국전쟁과 그리스도교'를, 원영상 원광대 교수가 '태평양전쟁과 일본불교'를, 홍미정 단국대 교수가 '십자군 전쟁과 이슬람의 평화' 등이 발표된다.

불교평론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쟁과 관련된 종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2025년 동호불교 8월 백중 물품 행사 품목

물품 소진시 마감 됩니다 ※ 택배비도 포함된 가격이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조상옷
쟈가드 100벌 이상 27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60,000원
추가옵션 (100개이상)
버선 300원
양말 35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속옷 세트 100개 이상 13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2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돈그림 짚신 100족 1BOX 210,000원 (1세트 3족)

종이지옷(봉투)
지옷 200개 1BOX 150,000원
수자 200개 1BOX 130,000원
동자선녀 200개 1BOX 15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수입홀초
원백 20개 7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수입
7일초 20개 57,000원
5일초 24개 60,000원
3일초 40개 65,000원
1일초 108개 95,000원
15일초 12개 90,000원
30일초 4개 15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국산홀초
원백 20개 75,000원
등신불 25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최상급 -국산(흰색)
7일초 20개 90,000원
5일초 24개 95,000원
3일초 40개 95,000원
파라핀 1BOX(1.8L/12개) 65,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 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7치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12000원)※

백중 행사 용품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6년 달력 행사중 (9월 30일까지 주문시)
26년 달력 9월 30일까지 주문시 할인혜택 받아보세요

'매장 방문시 추가 할인 혜택 받아가세요'
오색종이 100개 50,000원
삼베 50개 100,000원
삼베옷 (모자포함) 20개 120,000원
군웅 50개 100,000원
소창 50개 100,000원
길배-대 10개 150,000원
영가만원등 100개 230,000원
오색길배 (천왕길배) 30개 135,000원
비석위패 (향나무) 100개 270,000원

백중행사 기도 접수 받습니다-실사 25,000원(90X45)

보시용품 대량 구매 준비끝!!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예금주 :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401-1

통도사 항일운동 면면을 만나다

양산시립독립기념관 '영축산 외침' 특별전

12월 14일까지 항일유산 전시
구하 스님 저항시 등 첫 공개
명신학교 등 배일교육 조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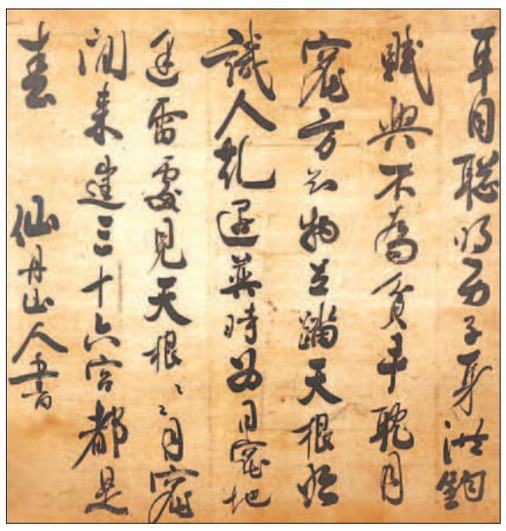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광복 80주년을 맞아 통도사 항일운동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양산시립독립기념관(관장 신용철)이 광복 80주년과 개관 2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 '영축산의 외침, 나라를 깨우다'를 8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복절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지역 불교계가 간직한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뜻깊다.

전시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다룬다. 통도사의 수행자들은 수행과 포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대적 고통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구하 스님, 만우 스님, 김말복 스님 등은 불교적 신념을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하며 항일운동의 최전선에 섰고, 그들의 행적은 불교가 공동체와 나라를 지켜 낸 호국의 실천이었음을 보여 준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만해 한용운, 백초월, 오택언 등과 함께 통도사 지방학림이 이끌었던 경남 최초의 '신평만세운동'을 다룬다. 성해 선사 회갑기념사진, 통도사 금강계단중수보조기 현판, 한용운과 오세창의 유묵, 백초월의 사군자 등이 전시돼 당대 항일 열기를 생생히 전한다. 불교계 인물들이 수행의 자리를 넘어 행동으로 나섰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구하 스님이 쓴 저항시. 양산시립독립기념관 기획특별전에서 처음 공개된다.

2부에서는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 스님의 활동이 집중 조명된다. 스님은 사찰 재정 일원화를 통해 불교계를 안정시키고, 불교잡지 간행으로 사상적 토대를 확산했으며, 상해임시정부 재정 지원에 나서는 등 항일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천했다. 전시에서는 구하 스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구하역사, 축산보림 초간본, 일본 방문 당시 남긴 유묵 등이 최초 공개돼 눈길을 끈다.

3부는 통도사가 설립·운영한 명신학교와 통도중학교의 배일교육 활동이 주요 전시 내용이다. 1939년과 1967년의 졸업앨범, 학적부, 제적부, 사설강습회 인가신청서 등 다양한 원본 자료가 전시되며,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항일정신의 요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통도중학교 배일교육의 실체를 증명하는 인물 사진과 문서들이 처음 공개돼 역사적 진실을 뒷받침한다. 이는 불교계가 미래 세대의 의식을 일깨우고 민족의식을 교육으로 전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전시는 구하 스님의 회갑기념시와 유묵, 통도중학교 졸업대장과 제적부 등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 자료들을 통해 불교계 항일운동의 구체적 모습을 새롭게 드러낸다. 관람객들은 통도사가 지역 사회와 함께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철 양산시립독립기년관장은 "이번 전시는 통도사의 정신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전시를 통해 지역의 자긍심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 지화, 국가폭력 희생자 위로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 꽃잎, 풀림 의례'展

불교 지화 100점 전시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영령을 불교 지화로 위로하기 위한 전시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는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재, 꽃잎, 풀림의 의례(Ashes, Wounds and Paper Petals)'를 주제로 8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반세기 넘게 불교 지화(紙花, 종이로 만든 꽃)를 제작해 온 삼척 안정사의 다여 스님이 만든 100여 점 작품으로 구성됐으며,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해원(解寃)의 의미를 되새긴다.

다여 스님은 일제강점기 금강산 유점사에서 안정사로 전해진 희귀한 불교 지화를 계승·복원해 왔다. 스님의 종이꽃 하나하나에는 교의 상징과 전통 기법이 담겨 있으며, 이는 단절 위기에 놓인 문화유산을 되살리는 동시에 국가폭력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무언의 헌화다.

전시는 기념관 M2(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1층부터 5층까지 공간별 의미와 상설전시 맥락을 살려 구성됐다. M2는 1970~80년대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폭력이 가해지던 공간이다.

작품들은 '살잡기'라 불리는 전통 주름 접기 기법으로 제작됐다. 이어 붙임 없이 종이 한 장으로 구현되는 꽃의 형태는 불교의 깊은 정신성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는 금강법계대일여래화(중생의 청정심 형상화), 약사여래칠불공덕화(해탈 상징), 묘법연금광명대바라화(언어를 초월한 진리 전수) 등 특별히 고증·재현된 작품도 선보인다.

전시 기획자인 김현진 전시감독은 "지화를 통한 해원은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는 '풀림'을 뜻한다."며 "어두운 기억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조용한 의례이자 치유의 행위"라고 전시의 의의를 설명했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모든 죽음을 가시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며 "기억·치유·화해를 향한 문화적 실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전시가 열리는 기념관 M2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 전시 관람을 하려면 사업회 누리집(kdemo.or.kr) 예약이 필수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⑦ 천수천안

사랑이 이토록 지극하네

千手千眼

무릎 꿇으며 두 손바닥을 모아 천수관음 앞에 축원의 말씀 올리나이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지니셨으니, 그중 하나를 내어 저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두 눈이 없는 저에게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일연 스님(1206~1289)이 지은 〈삼국유사〉 '탑상' 조에 실린 향가이다. 신라 경덕왕 때 한기리에 살던 여인 희명의 아이가 다섯 살 무렵 갑자기 눈이 멀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분황사 전각 벽에 그려진 천수대비(千手大悲) 앞에 갔다. 그곳에서 아이가 이 노래를 지어 빌자, 잃었던 시력을 되찾았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듣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왜 소리를 본다고 했을까? 여기서 '관(觀)'은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깊은 연민으로 가슴에 받아들이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헤아리며 그 고통에 응답하는 마음이다. 가슴과 머리가 동시에 울리는 것이 '관'이다.

'천수천안(千手千眼)'은 문자 그대로 천 개의 손과 눈을 의미하지만, 그 수가 한정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만이 되고 천만이 되어, 결국은 무량하다. 이는 고통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무량한 손과 눈으로 존재하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위로하기에 '응신(應身)', '화신(化身)'이라 불린다. 그래서 경전과 불화에는 다양한 이름과 모습으로 출현한다.

관세음보살은 '대비(大悲)'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대비란 깊은 연민과 공감을 뜻한다. 눈과 귀와 가슴으로 중생의 고통을 끌어안는 마음이며, 그 마음에서 지혜와 사랑이 나온다. 그런데 내가 대비의 마음으로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아파한다면 내가 즉시 관세음보살이 된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관세음을 불러내자.

"나무 보문시현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南無 普門示現 願力弘深 大慈大悲 救苦救難 觀世音菩薩)."

차별 없이 모든 곳에 나투시어 중생을 구제하시는 이여, 크신 원력과 한없는 자비로 고난의 신음을 듣고 달려오시는 분, 당신의 이름은 관세음보살입니다. 〈화순 불암사 주지〉

웹진 '님' 신인문학상 허진경·최재준 시인

8월 16일 만해학회 세미나서


허진경 시인


최재준 시인

만해학회가 발행하는 시 전문 웹진 〈님Nim〉 신인문학상에 허진경 시인과 최재준 시인이 선정됐다.

만해학회는 8월 16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열린 '제27차 학술세미나'에서 '제2회 〈님Nim〉 신인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허진경 시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KAIST 문화기술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최재준 시인은 워싱턴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보잉기술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심사를 맡은 유종인 시인은 허진경 시인의 작품 '파노라마' 등에 대해 "시적 드라마로 견인하듯 독자를 지적 재미의 관객으로 유인하는 연출과 눈썰미가 완연하다"고 평가했으며, 최재준 시인의 작품에 대해서는 "사물과 정황을 헤아리는 눈길이 따뜻하고 그 구체적인 정감을 의미와 결속하는 자연스러움이 시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만해학회 '제27차 학술세미나'는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을 기념해 '중도와 조화의 시대, 〈님의 침묵〉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김광원 시인이 기조 논문 '만해와 〈님의 침묵〉과 화엄 사상'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문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인 90인의 만해 시 감상평을 모아서 엮은 〈님의 침묵, 다시 읽다〉의 낭독회도 함께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6차분 10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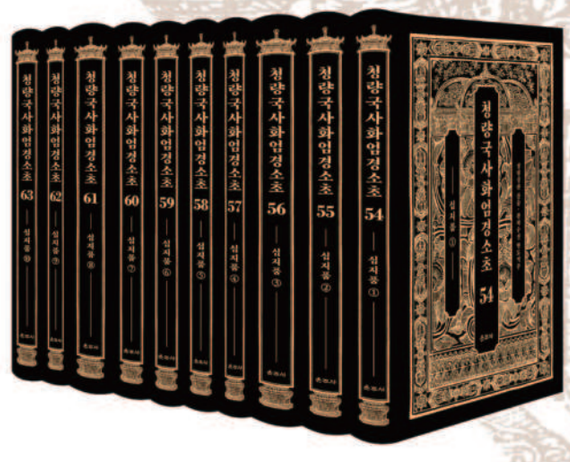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63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십지품」 10권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0~8/26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봉암사 동안거 일기	산강 대혜 스님	불교신문사
2	흔들릴 땐 마음수업	법상	모과나무
3	달라이라마가 전하는 우리가 명상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달라이라마	불광출판사
4	무비스님 신 금강경 강의	무비스님	불광출판사
5	수호신 기도	묘장	민족사
6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혜조	운주사
7	정토삼부경	석청화 / 문선우	불교서원
8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불광출판사
9	놓아버리기	아잔브람 / 혜안스님	궁리
10	도표로 읽는 명상입문	혜명 김말환 / 배종훈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행복한 삶을 위한 부처님 말씀(1)	이철현 엮음	오색필통
2	홍차학개론	정영숙	차와문화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시골농부의 마음공부	김일문	운주사
5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6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탁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7	들숨 날숨에 마음챙기는 공부(초기불전 002)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8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9	붓다 중도로 살다:깨달음은 지금 여기 삶이 되어야 한다	도법 지음	불광출판사
10	유마경:유마의 불가사의한 이야기	혜원 강설	운주사

어지러운 마음 밝히는 사찰 주련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지음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수행 공간' 알리는 사찰 주련

대표작 100편 엄선해 번역·해설

전각마다 특색…순례하듯 배치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말과 글이 넘쳐나는 시대, 짧고 간결한 사찰 주련(柱聯)에 주목한 책이다. 주련은 시구(詩句)나 문장을 종이나 판자에 새겨 기둥[柱]에 잇달아[聯] 걸어둔 것을 말한다. SNS의 짧은 글귀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친숙한 형식이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 중 핵심만 가려 새긴 사찰 주련은 전각이 '수행하는 공간'임을 일깨워 준다. 각 법당에 모신 불보살님과 관련된 경전이나 어록을 인용해, 주련의 글귀 주제도 전각마다 다른다.

일례로 양산 통도사 일주문 석주에는 "가사를 입고 삭발하였으니 언제나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구절이, 합천 해인사 해탈문 주련에는 "팔만사천 법문은 보살의 십지(十地)를 높이 뛰어넘는다"는 설호 스님의 게송이, 영월 법흥사 적멸보궁 주련에는 "진신사리는 지금까지 남아 있어 수많은 중생에게 예배를 쉬지 않게 한다"는 〈석문의범〉 '대예참례' 경구가 새겨져 있다.

또 영주 비로사 적광전 주련에는 "만약 이 자리는 같음도 다름도 아님을 안다면 곧 시방에 두루한 화엄세계다"(〈간화결의론〉), 예산 화엄사 약사전 주련에는 "범부는 전도망상으로 병의 뿌리가 깊어서 약사여래를 만나지 못하면 죄업을 소멸하기 어렵다"(〈석문의범〉 '약사청')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이처럼 수행자들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주련이지만 일반인들의 눈길이 가닿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 한문인데다 흘림체로 쓴 경우가 많고,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이라도 경전의 맥락을 모른다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련이 걸린 통도사 금강계단.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찰 순례 전문가인 목경찬 교수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에서 주련을 실마리 삼아 불교 이야기를 들려준다. 먼저 우리나라 사찰 주련 수백 편을 모은 뒤, 반복해서 보이거나 법문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100편을 추렸다. 각 주련은 일주문에서 시작해 천왕문, 범종각을 거쳐 대웅전, 극락전, 지장전, 칠성각, 대중방으로 이어지는 사찰의 공간 구조에 따라 배열한 후, 원문을 우리말로 풀고 해당 경구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서울 조계사 일주문 주련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지관 스님의 게송이 새겨져 있다. 저자는 "'마음에서 마음에 전하는 법이 그 무슨 법인가?'라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이것'이라고만 한 것은, 부처님과 조사가 전하는 것은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굳이 이름하자면 한 물건, 한마음, 불성, 진여 등"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책을 보고 나면 주련을 통해 사찰 순례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천 년 전 '찬불 시(詩)' 국내 첫 번역



신행 108송

도웅 스님 편역

한국범어연구원 기획

도서출판 중도

2만5000원

힌두교 학자의 삼보 귀의 '찬송가'

"범어 아름다움·불법 숭고함 노래"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며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기에 지혜가 있거나 없는 모든 중생들이 함께 세존에게 예경합니다." –'샤르둘라위끄리디땀' 중에서

찬불가의 고전이자 인도와 남방불교 전통을 아우르는 불교 송가 〈신행 108송(頌)〉이 도웅 스님(한국범어연구원장)의 편역으로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신행 108송'은 12세기경 인도 벵갈 지역의 힌두교 학자 빤딛 라마짠뜨라 바라띠가 찬술한 것으로, 그는 스리랑카에서 승왕 라훌라 존자에게 삼장(三藏)을 배우고 불법의 깊은 이치를 체득한 뒤 삼보에 귀의하며 이 시를 지었다. 특히 108편의 시편은 12가지 전통 운율로 지어져, 독송할 때 범어의 아름다운 리듬과 소리를 느낄 수 있다.

책에는 시 원문과 한글 번역, 독송을 위한 악보와 운율 해설, 간략한 범어 읽는 법까지 실어 찬불 문학의 정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도웅 스님은 "'신행 108송'은 한 지식인이 법문을 듣고 삶의 방향을 전환한 깊은 여정의 기록이자, 학문적 논리와 수행의 체험, 시인의 감성과 범어 문학의 정수가 어우러진 대작"이라며 "이 찬가를 통해 범어의 아름다움과 부처님 가르침의 숭고함을 함께 전하고 싶었다"고 번역을 맡은 이유를 밝혔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추천사에서 "〈신행 108송〉은 단지 한 권의 번역서를 넘어 깊은 신심과 교화를 메시지를 담은 찬송의 시"라며 "이 귀중한 찬송시가 널리 유통되어 불자들의 신행에 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밝혔다.

도웅 스님은 1966년 은해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중국불교연구원과 왕립대리석사원학원을 수료했다. 1992년 인도 바라나시에 한국 사찰 녹야원을 창건했으며 2012년 한국범어연구원을 설립했다.

새로 나온 책

생명의 자각을 노래하다



그림자가 하는 말

현담 스님 시집

기적의 마을책방

1만8000원

"삼계화택 세계가 다 타들어 가는데/ 누구 하나 불 끄는 사람들 없다/ 참 대책 없는 동네다 / 참 대책 없는 세월이다" –시 '119' 중에서

1978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한 현담 스님이 새 시집 〈그림자가 하는 말〉을 통해 인공지능의 시대, 생명으로 깨어나는 '자각'을 노래한다. 스님은 "지금의 분쟁과 광기들은 수행을 방기한 탓"이라며 "오직 공성이고 허망한 생명들은 육바라밀 수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 오욕락을 버리고 선업을 다시 찾자"고 당부한다.

현담 스님은 시집 〈햇살의 숲〉, 〈사랑이 오고 있다〉 등을 펴냈으며 현재 대구 청련암에 머물며 시작을 이어가고 있다.

경전으로 피어난 그림



바람난 부처님

동인 스님 그림

법진 스님 기획

솔과학

5만원

"그림이 수행이라면, 이 책은 한 권의 경전이다."

–황중환 교수(조선대 미술대학)

동인 스님이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불보살의 모습을 그린 작품 310점을 가려 담은 책이다. 동인 스님은 1976년 출가해 현재 지리산 토굴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없다.

책을 기획한 법진 스님은 "스님의 그림은 틀에 박힌 고정된 불화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며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다는 노래를 부른 것"이라고 말한다. 박종갑 경희대 미술대학장은 "스님의 그림은 빛으로 드러나는 무상의 가르침"이라는 감상평을 밝혔다.

부모 자식 관계가 '도(道)'



부모은중경

김현준 편역

효림

5000원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이 펴내는 한글 독송용 경전 시리즈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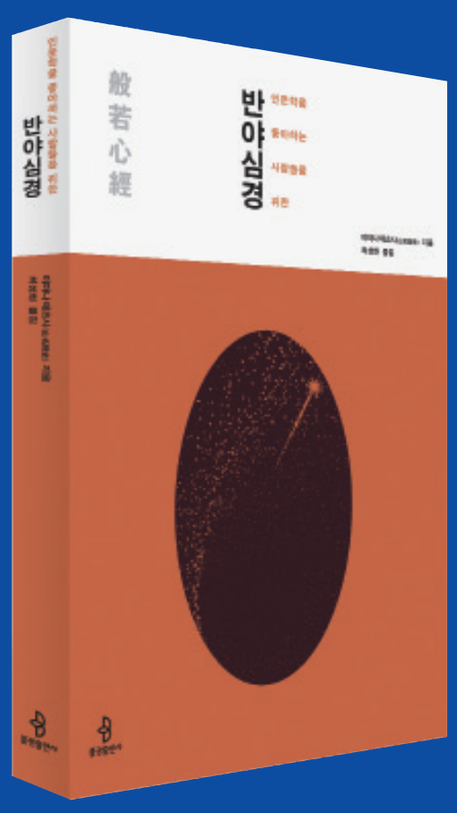
〈부모은중경〉은 원본과 번역자가 알려지지 않아 위경(僞經)으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에서 널리 읽히는 경전이다.

책에는 한글 번역과 함께 김홍도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용주사 동판본의 변상도를 실었다. 경문을 읽기 전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자세히 알려 준다.

김현준 원장은 "지극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가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도(道)'라는 것을 잊지 말고 더욱 좋은 인연으로, 마침내 깨달음의 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문학 vs 과학 지혜의 깊이를 두 배로 경험하는 특별한 독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



"붓다가 찾았던 것은 철학도 학문도 아닌 행복의 노하우였다"

1991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 일본 아마존 스테디셀러!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반야심경》 해설서

세상에서 가장 짧은 고전 《반야심경》
260자에 담긴 붓다의 행복론을 듣다!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
야마나 테츠시 지음 | 최성현 옮김 | 176쪽 | 14,000원

"우리가 사는 우주는 《반야심경》의 세계관이다!"

읽기만 해도 걱정이 사라지는 《반야심경》
물리학자가 밝혀낸 경전 속 과학의 원리

NASA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천체물리학자가 찾은 평온한 삶의 공식!

과학과 불교의 만남, 그 접점에서 발견한
삶을 밝혀주는 별빛 같은 지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
사지 하루오 지음 | 주성원 옮김 | 240쪽 | 18,000원



유마, 존재의 본질을 묻다



유마경—유마의 불가사의한 이야기
혜원 스님 강설
운주사 / 2만1000원

공·무상·불이 설파…대승불교 근간
재가자 주인공 "교단 체제 대전환"
혜원 스님 강설 '수행 실천' 강조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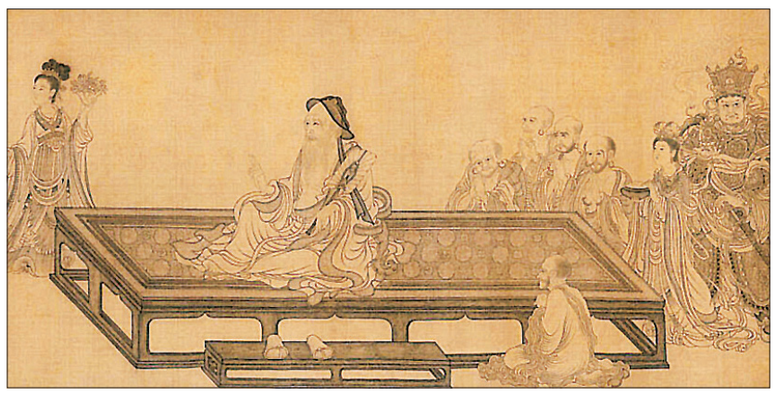
〈유마경〉은 유마 거사가 공(空)·무상(無常)·불이(不二) 사상을 설파하는, 대승불교의 근간이자 선불교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경전이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마음이 깨끗하면 불국토도 깨끗하다"는 경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경전들과 달리 〈유마경〉은 부처님이 아닌 재가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파격적 구성을 보인다. 이에 대해 혜원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은 "재가자도 출가자와 동등하게 불법을 깨칠 수 있고 전법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교단 체제의 대전환'"이라고 정의한다. 또 "가르침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던 설법과 달리, 다이내믹하게 변화를 주어 생동감이 드러나는 설법의 형태를 보인 것도 큰 변혁"이라고 짚었다.

〈유마경〉은 기원 100년 전후에 성립된 후 산스크리트어 원본은 사라지고 이를 인용한 티베트역만 남아 있다. 혜원 스님은 중국 요진 시대 구마라집의 한역본(5세기 초)을 바탕으로 〈유마경〉을 오늘날의 언어로 풀었다.

14품 가운데 핵심 구절을 선별해 번역하고 다양한 비유와 예화로 핵심 가르침을 설명한다. '불국품'의 '마음이 깨끗하면 불국토도 깨끗하다'는 구절은 "마음에 따라 나 자신도 변하고 세계도 변하며, 정토가 멀리 있을 수도, 바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처럼 정토가 바로 예토(穢土)이고 예토가 정토 아님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고 설명한다.

또 '보시'의 장에서는 물질적 나눔을 넘어 "미소 짓는 것도 큰 보시"라 말하고, '인욕'은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힘"으로 해석한다. 수행을 일상의 삶과 연결해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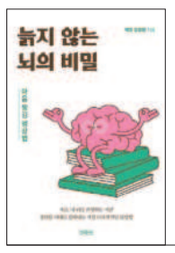


유마불이도, 왕진붕, 1308년,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혜원 스님은 "〈유마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물과 현실의 세계를 직시해 이에 대한 식견을 갖게 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불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한 치도 의심하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믿어야만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써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행이 이루어지며, 나아가 '참되고 진실불허'한 부처님의 세계, 즉 '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경의 테마"라고 말한다.

저자 혜원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고마자와대학 대학원 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불교문화연구원장, 불교대학장, 정각원장 등을 역임했다. 〈북종선〉, 〈한 권으로 읽는 종용록〉, 〈한 권으로 읽는 벽암록〉, 〈무문관〉 등을 펴냈다.

명상으로 뇌를 건강하게



늙지 않는 뇌의 비밀
혜명 김말환 지음
민족사 / 1만6500원

'잠시 지켜보는 힘'이 핵심
생활 속 명상 실천법 안내

뇌는 늘 피로하다.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으로 우리 뇌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 집중력 약화, 감정 기복, 치매 위험까지 마주하게 된다. 뇌의 노화를 늦출 수는 없을까? 명상지도자 김말환 박사는 '명상'에서 그 답을 찾는다.

〈늙지 않는 뇌의 비밀〉은 오랜 명상 수행으로 "삶의 매 순간을 깨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데 마음 챙김 명상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한 저자가 쓴 실천적 안내서다.

책에서는 먼저 뇌의 노화 메커니즘을 들여다본다. 뇌에는 약 8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이들은 수천억 개의 시냅스로 연결된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전두엽과 전전두엽 피질이 과부하 되어 손상된다.

저자는 명상 수행자의 뇌를 측정한 결과 명상으로 전전두엽 피질에 혈류 공급이 풍부해지고, 감정 조절과 인지 기능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마음 챙김 명상으로 호흡의 리듬, 감각의 흐름, 뇌의 안정성을 회복해 손상된 뇌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명상의 치매 예방 효과에 주목한다. 저자는 "명상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불안, 분노, 스트레스라는 감정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잠시 지켜보는 힘'을 길러 줌으로써 뇌의 회복력과 감정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해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명상이 뇌의 안정성을 회복해 손상된 뇌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생활 속 실천 방법으로 먹기 명상, 몸 스캔, 호흡, 수영, 자애 명상 등을 쉽고 자세하게 소개한다. 음식 한 입을 오감으로 경험하고, 숨결을 따라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며, 몸의 감각을 어루만지는 행위를 뇌를 회복하는 과학적 훈련으로 제시한다.

저자 김말환 박사는 군법사로서 장병 치유 활동으로 보국훈장을 수훈했고, 이후 불교상담 교육과 명상센터 운영을 통해 대중 수행 지도를 이어왔다. 저서로 〈선수행과 심리치료〉, 〈도표로 읽는 명상입문〉, 〈명상수행자를 위한 내면의 통찰과 자기성장〉 등이 있다.

이웃 종교 책 읽기

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질까?



이단백서
조믿음 지음
바른미디어
1만5000원

기독교 이단·사이비 추적기
불교 호감에 '유사불교' 경계

이단과 사이비. 얼핏 비슷해 보이는 말이지만 그 뜻이 정확히 같지는 않다.

국립국어원은 '이단(異端)'을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 '사이비(似而非)'는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또는 그런 것"이라고 정의한다.

최근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론되는 종교단체는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이단 혹은 사이비로 규정한 곳들이다. 이단·사이비 종교가 신도 개인을 넘어 국가 운영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형국이다.

〈이단백서〉는 오랜 시간 사이비 종교를 연구해 온 조믿음 목사(바른미디어 대표)가 '사람들은 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걸까?'를 추적한 책이다. 2019년 출간된 후 2023년 개정증보판이 발행됐다. 조 목사는 개정증보판 서문에서 "이단·사이비의 문제는 곧 사람의 문제"라며 "포섭법, 교리 등의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단·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사람'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구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사이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1917년 "여호와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순화가 창시한 '정도교'와 자신이 "예수의 친림"이라는 한에녹이 창시한 '원산예수교회' 등이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만행을 폭로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JMS의 실태를 공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 출처=넷플릭스 홈페이지

저자는 이처럼 다양한 이단·사이비가 발생하는 이유를 △성경의 자의적 해석 △경제 붕괴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시대적 배경 △일부 교회의 타락 △인간의 악함와 연약함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단·사이비 대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기존의 예방과 교리 비판을 넘어 △피해자와 탈퇴자의 전인적 회복을 위한 교육 △심리·정서 상담 △법률적 지원 △미디어 사역자 양성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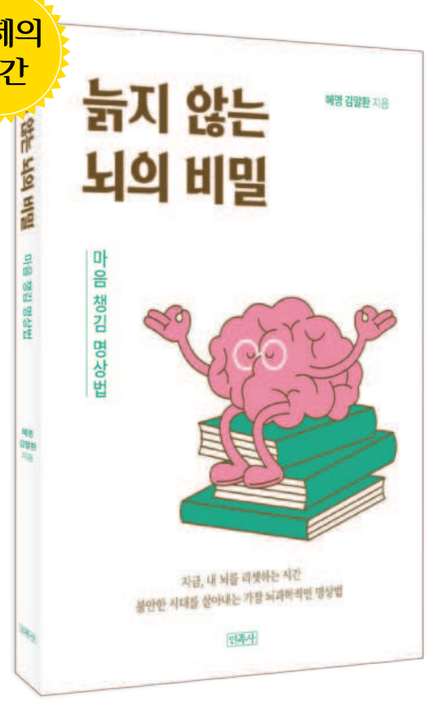
책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 교단은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갖추고 있고, 위원회 총회에서 특정 단체를 이단·사이비로 결의하거나 해제한다.

불교의 경우 이단·사이비라는 개념이 약하고 이를 규정하는 기구도 없어 이 책의 주장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불교'와 '스님'을 사칭한 범죄가 때때로 불거질 뿐 아니라 선거철마다 극단적 정치색을 드러내는 종단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의 '힙(Hip) 불교' 흐름을 틈타 유튜브나 SNS 등에서 '유사 불교'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젊은 세대의 호감을 미끼로 잘못된 믿음이 퍼지고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바른 가르침을 전할 방법이 무언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단·사이비 피해자들은 말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이미 늦다."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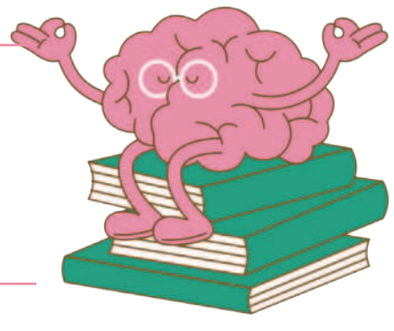


명상 수행자의 뇌는 다르다

마음 챙김 명상법

명상을 통해 뇌세포를 회복하고
치매를 늦추는 구체적 길을 보여준다.

뇌는 매일 피로하다.
생각, 감정, 스트레스는 뇌를 소모시킨다.
마음챙김은 노화하는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가장 수행적인 방법이다.
이제 명상이 '뇌 건강법'이 되는 시대이다.



늙지 않는 뇌의 비밀
마음 챙김 명상법
혜명 김말환 | 204쪽 | 16,500원

무심보광 전 동국대학교 총장스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은 《선수행에 의한 심리상담법 연구》 이다. 군법사로 활동하며, 군 생활에 부적응하는 장병들을 위한 선도 및 치유 활동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훈하였다. 전역 후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상담 전공 객원교수, 서울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미래융합교육원 민간자격과정 '명상 지도 전문 강사과정' 주임강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서울 관악산 화승사에서 선심리 상담 및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선수행과 심리치료》《도표로 읽는 명상입문》《명상수행자를 위한 내면의 통찰과 자기성장》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선문답을 통한 심리 고찰》(한국불교학, 제29집, 한국불교학회, 2001)《심우도의 수행과 자기실현》(대각사상연구, 2002) 등이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그대는 자비보살

이연화 은해사 108순례단장



이연화 은해사 108순례단장은 '연화'라는 이름처럼 "연꽃이 필 무렵 태어나 불자가 될 인연이었다"며 "어디에 있든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연꽃' 같은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부처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감사'로 채웁니다"

영천=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매주 둘째 주 일요일. 이른 새벽부터 영천 은해사 일대가 떠들썩하다.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길을 나서는 은해사 108순례단의 분주한 발걸음 때문이다. 오늘은 또 어떤 도량에서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도반들과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을까. 꽃분홍색 조끼를 맞춰 입고 반가운 인사를 건네며 버스에 오르는 이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하다.

사찰 성지순례는 불자들에게 필수적인 신행 활동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 중단된 데다 고령 신도들의 이동 제약, 개인화된 신행 문화 확산 등으로 점차 줄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은해사 108순례단은 지역 불자들을 다시금 결집하는 '순례 붐'을 일으키며 새로운 신행 문화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순례의 중심에는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2024년 3월부터 은해사 108순례단을 이끄는 이연화 단장이 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 도량을 찾아 신심을 북돋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순례단을 발족했다.

"은해사 신도회장 소임을 맡았을 때부터 순례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와 다른 활동들로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죠. 많은 분이 함께 부처님 도량에서 가르침을 배우고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길 바랐는데, 교구장 스님께서 흔쾌히 승낙하고 적극 지지해 주셔서 지금의 순례단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의 출발은 '단톡방'에서 시작된다. 참가자들에게 순례 사찰 정보를 공유해 미리 공부하도록 돕고, 버스에 탑승해서는 사찰 기본 예절과 기도법을 안내한다. 사찰 도착 후에는 자유롭게 참배하며 기도하고, 순례단이 매번 빼놓지 않는 꽃 공양도 올린다. 꽃 공양에는 늘 '사찰 사부대중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마음을 새긴다.

지난 1년 반 동안 순례단은 구례 화엄사, 남양주 봉선사, 하동 쌍계사, 평창 월정사, 해남 대흥사 등 전국의 사찰을 참배했다.

"순례는 불자들에게 새로운 사찰을 소개하고, 작은 마음이지만 기왓장 하나에 발원을 담아 보는 시간을 제공하면서 복을 짓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순례길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순례에 나서기까지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사찰 선정, 차량 배정, 공양 준비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도 박순흠 108순례단 총무국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각 버스를 담당하는 팀장들의 도움, 그리고 '누군가를 부처님과 인연 맺게 한다'는 굳은 믿음이 큰 힘이 됐다.

처음 80명으로 출발했던 순례단은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550명으로 늘어났다. 영천뿐 아니라 대구, 안동, 밀양 등에서 불자들이 찾아왔고, 연령대도 10세 어린이부터 88세 어르신까지로 다양하다. 부부가 함께,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불자와 이웃 종교인이 함께, 장애인이 함께 걷고 기도하는 모습은 순례단만의 특별한 풍경이다.

이 단장의 세심한 준비와 따뜻한 리더십 덕분에 참가자들은 매번 순례에 깊은 만족과 감동을 표했다. 그 경험은 다시 가족과 친구를 순례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 합류한 이들 중 불교가 낯선 초심자가 대다수라는 사실이다. 곧 순례단이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불자 인연을 넓혀 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단장은 초심자들이 순례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례 중에는 자유시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부처님오신날·개산대재 등 사찰 행사에 초대해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를 접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108

함께 수행하는 '은해사 108 순례단' 발족
입소문 타고 80명에서 550명으로 확대
덕조 스님, 기도·법문으로 순례단 '버팀목'
순례 만족은 가족·친구 동참으로 이어져
초심자 대다수…자연스레 불자로 정착
은해사 신도회장 등 불교·지역서 활약

순례단 회향법회'를 열어 함께 108배를 하고, 성실히 참여한 이들에게 개근상을 수여하며 성취감을 북돋웠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라는 말이 있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는 뜻처럼,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다가올 수 있어야 불교의 진면목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순례단의 든든한 버팀목은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 스님은 순례단 버스를 오가며 기도와 법문으로 참가자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덕조 스님은 "이연화 단장이 신심과 사명감으로 발 벗고 나서줘, 나 역시 든든한 후원자로 열심히 보조했다"며 "(이 단장을 통해) 하고자 하는 신심과 원력, 정성이 모이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순례단의 활동은 영천 지역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덕조 스님은 "순례가 활기를 띠면서 은해사는 물론 지역 전체가 달라지고 있다. 다른 지역 불자들이 함께 어울리고 이웃 종교인들까지 동참하면서 공동체의 의미가 더욱 넓어졌다"며 "불교의 장점은 배척이 아니라 수용이다. 눈빛과 정성, 예우와 감동은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질 때 비로소 피부로 느껴진다. 그런 점에서 순례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연화 단장에 대해 "불교를 향한 신심은 따라올 사람이 없다. 무엇을 하든 불자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며 모든 것을 부처님 전에 회향하려는 원력이 분명하다"며 "불교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맨발로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모습은 수행자 못지않다"라고 평가했다.

스님의 말처럼 이 단장의 불심은 집안 어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친정과 시댁 모두 불자 집안이었으며, 영천시의회 의장을 지낸 아버지가 은해사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었다. 대구에서 지내다 18년 전 고향 영천으로 돌아온 이 단장은 생활이 곧 봉사고, 봉사가 곧 생활이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은해사에 도움이 되고자 제27·28대 신도회장으로 활동했다.

신도회장 재임 기간에 어린이·청소년 대상 그림 대회, 고3 수험생 위로 음악회, 힐링·명상 1박 2일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해 신도회 결속과 화합을 다졌고, 말사 신도회까지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맡아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대구법원 민사조정 위원, 결식아동을 돕는 행복한사람들 고문, S(시니어)터링협회 수석부회장, 영천시 걷기협회 고문 등을 맡아 불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제게 주어진 일은 부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우리 불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저 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건 불자가 아니잖아요."

이 단장은 삶의 중심에는 항상 부처님이 있다. 어려움이 닥쳐도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욕심을 내려놓으려 노력했다. 그러니 모든 일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감사는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스트레스도 줄여 줬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자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꼭 염주를 한 알씩 돌리며 하루의 감사함을 되새기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불자로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는다. 집과 사무실 곳곳에 연꽃 작품을 전시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떠올리고 있다.

"제 이름이 '연화'인데, 연꽃이 필 무렵 태어났습니다. 불자가 될 인연이었나 봅니다. 불자가 될 수 있어 감사하고, 부처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진흙탕 연못에서도 향기를 피우는 연꽃처럼, 그렇게 연꽃을 닮아가겠습니다."



은해사 주지 덕조 스님과 이연화 단장이 차담을 하는 모습.



올해 7월 김제 금산사에서 진행된 은해사 108 순례.



올해 3월 마곡사에서 이연화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순천 송광사를 순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32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



▶한줄 요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음공부를 통해 체계적인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을 닦는 연습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모든 것은 인과 흐름…오가는 마음 막지 말라

"

인과 보지 못하고 시비하면
스스로 불편함만을 만들 뿐
마음공부 통한 체계적 수행
흐름 속에 살아감을 알아야

"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앙상한 가지에는 봄 기운 스며 있고
파릇한 새싹에는 가을 열매 품었구나.
텅 빈 마음일랑 온갖 씨앗 품었거늘
살랑 바람 풍성 열매 내일이면 찾아오리.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생겨날 징조입니다. 그리고 생겨난 것은 이미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성주괴공(成住壞空), 희로애락(喜怒哀樂)은 찰나의 순간에도, 하루의 짧은 시간에도 일 년, 십 년, 혹은 평생에도 반복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 성공과 실패, 웃음과 화남, 오만가지 일들을 겪더라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모든 것은 그저 오고 가는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각자의 인연은 모습이 다르고, 감정이 나타나는 때 또한 다릅니다. 마음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필연(必緣)입니다. 뜨는 해를 말릴 수 없고 지는 해를 잡을 수 없듯이, 마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한때이고 나빠도 한때이니, 가는 마음을 잡으려 하지 말고, 오는 마음을 막으려 하지 않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여(如如)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겪는 일이 계절의 변화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입니다. 거대한 인과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일들에 시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둘째, 수억 겁생(劫生)에 걸쳐 쌓인 업(業)의 감정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악순환을 반복하며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음공부를 통해 체계적인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을 닦는 연습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명상은 이러한 마음공부를 돕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명상글과 덧붙임의 설명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닦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을 비우고 오고 가는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명상]
햇빛은 해와 다르지 않고
달빛은 달과 다르지 않듯이
내가 보는 모든 모양,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은
내 마음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다시 한번 반복하여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관념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소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사람들의 바람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불교를 통해 이루어 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내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결과밖에 되지 않으니 원하는 욕심을 바꾸고 비우지 않고서는 욕심을 부린 후환과 인과의 고통을 피하기란 불가능 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원하는 욕심만 앞세워서 살아가게 된다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없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니,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저장된 업식에 따라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자의 생각과 느낌과 보이는 마음의 눈높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인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중생은 괴로움이라는 생각과 느낌과 기억이 있으므로 괴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고, 부처의 마음에는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므로 괴로움의 인연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마음에 따라 세상이 나타나게 되고, 새는 새의 업식의 마음에 의해 세상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중생은 자기 마음의 눈높이에 의해 세상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느낌의 마음 안에 좋은 것이 있으니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고,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생각과 느낌 또한 내 마음 안에 잠재돼 있으니, 현실의 인연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분별(分別)심이라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마음 안에 있는 괴로움의 씨앗을 없애야만 합니다. 설사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 속 업식을 바꾸지 않고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 인연들이므로,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하여 하루빨리 깊은 공부를 이뤄야 합니다.

기도와 염불, 보시와 참회, 계행과 참선은 마음의 업식을 바꾸는 도구가 되고 연장이 됩니다. 수행 정진하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Love is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⑫ 청허(淸虛) 스님



▶한줄 요약
청허 스님은 1640년대 거창 심우사, 경산 경흥사, 상주 남장사에 보물급 목조불상을 만든 조각승이다.

거창 심우사·상주 남장사 등에 보물급 불상 조성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수화승으로 활동한 조각승 청허 스님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부터 1640년대 후반까지 활동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허 스님이 부화승이나 차화승으로 활동했던 1630년대의 구체적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각승 청허 스님에 관한 가장 빠른 기록은 1605년 음력 3월부터 7월까지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을 만든 후, 음력 8월부터 11월까지 완주 위봉사 북암에 4구의 목조보살입상(완주 위봉사·익산 관음사[보물], 익산 혜봉원)을 조성한 것이다. 이 시기 청허 스님은 수화승 원오 스님과 함께 불상 조성에 참여했고, 당시 참여한 5명의 조각승 가운데 세 번째 언급된 것을 보면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허 스님은 부휴선수(浮休善修) 스님이 증명(證明)을 맡고, 의암(義庵) 스님과 김문의(金文儀)가 화주로 참여한 완주 위봉사나 그 주변 사찰의 불상(조성발원문만 남아 있음)을 제작했다.

그 후에도 청허 스님은 1610년 원오 스님과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완주 위봉사 진석당 조성, 보물)을, 1614년 음력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각민 스님과 순천 송광사 비로자나불삼존상(한국전쟁 중 소실)을 조성했다.

청허 스님은 1622년 5월에 왕실사찰인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에 현진·응원·수연·법령·인균·승일 스님 등과 비로자나불(2존), 석가여래(3존), 노사나여래(2존), 미타여래(2존), 관음보살(1존), 대세지보살(1존) 등 11존의 불상을 조성했다. 현재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보물),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보물)이 조사됐다.

청허 스님은 1640년 음력 5월부터 8월까지 법현(法玄)·현윤(賢允)·승호(勝浩) 스님과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거창 연수사 조성, 보물), 1644년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 1645년 음력 6월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을 조성했다.

문헌을 중심으로 청허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스님은 1580년대에 태어나 임진왜란을 겪고, 1600~1610년대 조각승 원오 스님과 논산 쌍계사, 완주 위봉사 등에 소조불과 목조불을 제작했다. 그 뒤 1620년대 조각승 현진·응원·수연 스님 등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 협업한 후, 1640년대 수화승으로 거창 심우사, 경산 경흥사, 상주 남장사 목조불상을 조성했다. 경흥사 불상 조성발원문에는 청허가 전라도 금산사 화원이라 적혀 있고, 상주 남장사 불상 조성발원문에는 해동화명(海東畵名)으로 적혀 있어 소속 사찰을 포함해 당대 최고의 장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각승 계보는 원오(元悟, 이하 활동 시기 1583~1624)·각민(覺敏, 1604~1614)→청허(淸憲, 1605~1645)→영색(英賾, 1626~1649)·법현(法玄, 1634~1643)·현윤(賢允, 1637~1653)·나흠(懶欽, 1634~1657)→승호(勝浩, 1640~1719경) 스님으로 이어졌다.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1644년에 청허 스님이 제작한 대표적인 불상이다.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1635년부터 스님들이 동학산(動學山) 남쪽 기슭에 새로운 사찰을 중건하려는 마음을 모아 시작해서 1644년 영규(靈圭) 스님이 중건 불사를 마무리하고, 수화승 청허(淸虛) 스님을 비롯해 영색(英賾)·현욱(玄旭)·정혜(淨惠)·나흠(懶欽) 스님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항마촉지인을 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한 삼존불이다.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여래와 보살의 형태적 차이만 있을 뿐 신체 비례와 얼굴, 옷 주름 표현 등이 유사하다. 어깨와 무릎이 넓어 당당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방형의 얼굴에 작은 이목구비, 단정하면서도 간결한 옷주름 등이 특징이다.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40년). ©국가유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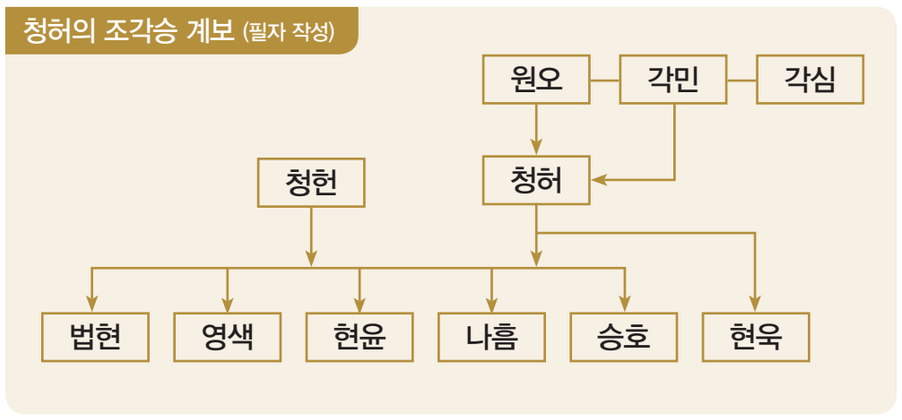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44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45년). ©국가유산청

> “17세기 초반 원오·현진 스님 등과 불상 작업
> 원오·각민 스님 계보 이은 당대 최고 장인
> 법현·현욱·영색·나흠·승호 스님 등이 계승”

청허의 조각승 계보 (필자 작성)



석가여래상은 높이 148㎝의 중대형으로, 몸체에 무릎을 붙인 전형적인 조선 후기 목조불상의 접목식(接木式) 제작 방식을 따르고 있다. 대의 안에 부견의를 입지 않고, 항마촉지인을 결하였으며, 왼손의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낮은 육계에 중간계주와 중앙계주가 있으며 얼굴 표정은 엄숙하면서도 온화한 모습이다.

좌우 보살상의 보관에는 화염문, 구름문, 보상화문의 금속판을 오려 만들어 부착하고, 좌우 측면에 날리는 관대(冠帶)를 부착했다. 어깨에 늘어뜨린 머리카락(보발), 부견의를 입은 변형통견식 대의에 수평으로 접은 승각기 상단의 모습은 석가여래와 차이가 있다. 우협시보살은 왼손이 본존과 같은 모습이고, 오른손이 손바닥을 밑으로 향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좌협시보살은 우협시보살과 대칭의 손모양을 하고 있다.

청허 스님이 만든 불상은 얼굴에서 위엄이 풍기는 인상이나 착의법 및 수인(手印) 등의 표현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형태는 그의 제자인 나흠·현욱 스님 등에게 계승됐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particular 석결명술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44호 | 15 | 전면광고

여러 강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 짠맛이 되듯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쌓은 보살의 선행도 중생의 깨달음에
회향 되면 해탈의 한 맛이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적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15억
- 위치 : 경남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외 • 매가 : 30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포교원 하실분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매매가격 : 5억5천
- 대지 : 107평(354㎡) / 건평 : 150.2평
- 지하 : 24.4평 / 1층 : 67.4평 / 2층 : 58.3평 / 옥상
- 1층과 지하 전세줌 / 1층 화장실1
  2층 법당1 방2 주방 거실 화장실2

010-3042-0852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및 집기 일체 5000만원(절충)

010-4179-6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주택 지상권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 용도 : 토굴, 요양, 주말휴식
- 방1 주방1 화장실 실내1, 실외1
- 창고3 원두막1 잔디마당
- 리모델링, 에어컨 설비, 기름보일러
- 4가구 거주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 가액 : 2800만원

010-5454-76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무학대사 숫가락으로 우물판 자연동굴 옆, 굿당-기도처 최적지)
- 약 80평 사찰
- 법당 요사채 대지420평 임야 210평
- 가액 : 3억원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
- 평수 : 1860평
- 법당 : 25평 산신각 : 8평
- 요사채 : 45평, 28평
  ※태양광, 저온창고, 화장실 3개
- 가액 : 5억(절충 가능)

010-5635-94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7억 4000만원

010-3868-821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길곡면
- 490평, 건평 90평, 과수 20수
  2층 건물, 2층 법당
- 대문 앞 버스정류장
- 굿당 가능
- 가액 : 4억 9천만원(절충가능)

010-4311-349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67번지 4층
- 약 30평, 방2, 법당1, 화장실1
- 보증금 500/월세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인연닿아 포교당 운영하실 스님 찾습니다

010-4641-5474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도원동(대곡아파트 단지, 대곡시장 옆)
- 5층 건물 중 4층, 건평 60평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트 완비
- 보증금 1000만원/월세 70만원(현재, 절충)
- 법회시설 완비(바로 법회 가능)
- 찜질방1, 공양간, 친견실1, 종무소1

010-3545-444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서 사천시 경계
- 대지 총 133평(텃밭 20평 포함)
- 건물 법당 30평(인법당 및 스님 주거공간 포함)
- 공양채 20평(태양광 3K 설치 완료)
- 법당시설 완벽함(최상급 인법당 시설)
- 법사님 비구니 스님 추천(토굴로 적합)
- 매매가 3억 6500만원
  (은행 융자 1억 5500만원 포함)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5003-4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창수면 5분거리
- 시골촌집 토굴삼아 수행하실 분
- 10평 등기있음 1년토지세 8만원, 방2 주방1 화장실1, 실제사용, 더넓음 마당 주차, 몸만오시면 됨
- 소임관계로 급매
- 2800만원

010-4323-35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존경받고, 불사에 큰 마음가지시는 스님께 도량을 올립니다.
- 경상도 내 유명사찰이고, 신도님 약 30만명 (종단본부도량)
- 신라경순왕 시대창건(추정), 현재 불사 약1000억원 시행완료.
- 문화재 2점보유 전통사찰 곧 등재 됨, 대웅전 등 건물12동
- 총무 · 재무 보살님과 직원은 스님이 임명가능 하십니다.
- 추가 불사비용 일부 준비되는 스님만 상담드립니다.(신도회)

053-745-9999, 010-2512-7777

들기름을 이용한 단청보호 및 색채 복원제

들기름 전통 도료

특허출원번호 10-2023-0181680

國寶 蘇子油

소자유

단청보호, 색채 복원제

발수코팅 · 오염방지 기능

천연의 식물성 들기름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과학으로 특화된 기술의
결합체인 들기름 전통 도료입니다.

항균시험 99.999%, 중금속 불검출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주목 관아(문화재) 시공사례

동화특수산업(주)
국보도료연구소

문의 I 010-3747-2111
TEL I 031-451-6232 FAX I 031-451-6238
주소 I 경기도 군포시고산로 166, SKI 벤티움 102동 1201호
E-mail I woodgim@hanmail.net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안내

1544호 | 16 | 전면광고

나 여래는 오직 길을 가리킬 뿐이니
그 길을 따라가고 가지 않는 것을
나인들 어찌하겠는가.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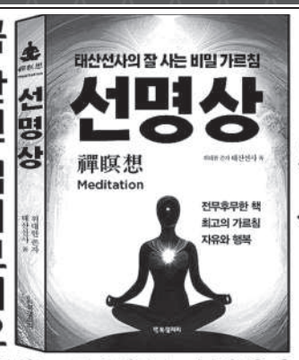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사찰행사)범음범패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지혜 방편 ! 사주 · 명리 · 구성학

1 :1 강의 단기완성 !
포교당 스님! 찻집보살님!
안양시. 토굴 · 스님

010-9497-3476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 즉시 영가 천도
종교인 상담불가,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사무장 구함 010-4804-2309

불교 용품 경매 알림

품목 : 불상, 불경, 불기
불화용품, 불교관련 용품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
장소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세동길 8

오리정휴게소 내 010-3717-403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사찰스틸건축 전문
성공기업

스틸공법으로 목재대비 1/3 비용
공사기간 2개월로 단축



010-2628-9944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약천사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173-1

2025년 8월 21일

재단법인 선학원장 법하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제2기 수강생 모집공고

1.모집대상
• 한국불교태고종 스님. 전법사. 교임 • 타종단 승려(참여가능)
• 불교신자 및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2. 모집학과 및 교육내용
• 경전반 :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제반의식
• 의식반 :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재의식(시다림,49재), 점안의식, 불교사물 등
3. 교육일정
• 경전반 : 2025년 3월 17일(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 의식반 : 2025년 3월 11일(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4. 교육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 태고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5.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교무국장 법륜스님(010-9233-8371)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육임학당' 개원

'육임학당'이 서울과 대구에서 열립니다.

효사 저는, 거절할 수 없는 요청으로 육임학당 '효사숙'과 '대구숙'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난 2001년 '육임래정비법'을 세간에 펴낸 이래 '육임산책' 등 효능 있는 육임활용서를 다수 간행했습니다.
특히 육임 지평을 제시한 '육임강론' 등 육임학습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육임학당인 '서울 효사숙' '대전숙' '전주숙' '광주숙' '진주숙' '부산숙' '대구숙' 등 전국 순회 강의를 진행했으며, 한국경제TV 대육임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동방대학원대 미래예측학과 교수 때 프로그램 '효사비결', 육임앱 '육임AI'를 만들어내는 등 저에게 녹아 있는 육임의 정수.
그 필수불가결적 현장성의 효능을 아낌없이 꺼내 효과있게 쓰실 수 있게끔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육임학당 '효사숙'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24길 4. 세림펠리체 1301호

육임학당 '대구숙'
대구시 동구 방촌로 1길 151. 자비사 2층

※육임프로그램 '효사비결', 육임 앱 '육임AI'를 구입해 쓰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수강하십시오.

- 수강안내 I 서울 8.23(매주 토)13:00 대구 8.24(매주 일) 13:00
  단, '효사비결'과 '육임AI' 구입하신 분은 15:30 입니다.
- 수강기간 I 3개월 (육임활용 효능법 위주)
- 등록비용 I 60만원 (매회 강의-영구활용자료 제공)
  ('효사비결', '육임AI'를 구입하신 분은 20만원)
- 신청마감 I 8월 21일(목) 17시까지
- 입 금 I 농협 301-0252-7245-11 도서출판 보화천교

문 의 02-567-3850

고복자 효사 배상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⑯ 정각원 불단(상단) 2

정토와 법화 교차하는 자리

동국대학교 정각원 상단에서의 사색을 '전수(專修)'라는 다소 생경할 단어로 시작해보고 싶다. 전수란 한 가지 믿음의 대상과 수행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미타불을 믿는 사람은 아미타불만을 부르고 〈법화경〉을 믿는 사람은 〈법화경〉만을 읽는 것이다. 특히 종파불교가 성행하는 일본에서 많이 쓰는 단어다.

일본 정토종의 개조인 법연(法然) 스님은 중국 당나라에서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믿어진 선도(善導) 스님이 쓴 〈관무량수경소〉에서 '전념미타명호(專念彌陀名號)'라는 글귀를 보고 전수염불(專修念佛)을 주장하면서 정토종을 창립했다. 오직 아미타불의 이름만 부르자는 말이다. 일본 천태종의 개혁종파인 일련종의 일련(日蓮) 스님은 전수창제(專修唱題)를 말했다. 본래 천태지자 대사 지의 스님은 〈법화경〉을 중시하나 법화지상주의자는 아니었다. 말하자면 원교주의자였다. 이 원교란 대부분의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것이고, 〈법화경〉은 원교의 대표일 뿐이지, 원교를 독점하는 경전은 아니다. 법화지상주의자인 일련 스님에게 이는 맘에 들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천태로 시작했지만, 이를 버리고 오직 '묘법연화경' 다섯 글자만을 부르짖자고 말했다.

정각원 부처님을 앞두고 전수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정각원 상단이 좌우 보처가 없는 아미타불 한 분만을 모시고 있는데, 그 뒤의 후불탱화가 〈법화경〉의 무대를 그린 영산회상도이기 때문이다.

불교신앙의 형태는 다양하다. 화엄신앙도 있고 조사신앙도 있고 여러 재일에 특수한 한 분의 불보살만을 기리는 날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같이 신앙되지, 독자적으로 하나만이 신앙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불교신앙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포용적 태도를 취하는 데 반해 정토신앙과 법화신앙은 굉장히 특수한 모습을 보인다. 앞서 말한 다른 신앙을 배제하는 배타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정각원 상단은 불교신앙 중에서 가장 배타적인 신앙 두 개가 교차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필자는 큰스님들의 구술 기록이나 말년의 행적을 읽는 것을 즐기는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젊은 시절 눈가에 선기(禪氣)가 뿜어지던 납자(衲子) 스님도, 혹은 화엄의 바다를 종주하던 강사(講師) 스님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정토나 법화로 기우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즉 정토신앙이나 법화신앙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마지막 난제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죽은 뒤에 우리는 어디로 갈까? 아미타불을 외우든 〈법화경〉을 읽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정각원 상단의 일부. 사진=정각원 제공

불교신앙 중 가장 배타적 신앙 교차
정토 · 법화는 죽음이란 난제에 대답
〈법화경〉 읽는 이 아미타불 정토 이끌어

그런데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의 교주로서 염불행자가 죽을 때 반드시 데리러 온다고 하여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아예 법장보살이 세운 48원에는 임종현전원(臨終現前願)이 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른 자가 임종할 때 반드시 자신이 현전하겠다는 원이다. 반대로 〈법화경〉이 죽음과 관련하는 경우는 잘 들어 보지 못했을 것이다. 〈법화경〉과 죽음을 연결 짓고 〈법화경〉과 아미타불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며, 불교신앙 중 가장 배타적인 정토와 법화가 교차하는 정각원 상단의 일극점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불교학자 스에키 후미히코(末木文美士)는 〈법화경〉을 '사자(死者)와의 대화'라고 파악한다.(〈他者·死者たちの近代〉) 그는 현실의 사람은 돌아간 사람들의 위에서 살고 있으므로, 삶이 죽음이라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지적한다. 그러면서 〈법화경〉의 석가모니불과 다보불의 이불병좌(二佛並坐, 두 부처님이 한 자리에 앉음)가 죽음 위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현재의 반열반하지 않은, 즉 죽지 않은 석가모니불은 과거의 반열반한, 즉 죽은 다보불의 인정이 없이 〈법화경〉을 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억하시는 독자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죽은 이들로 인해 남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라는 '디 아워스' 영화 대사를 인용한 적이 있다. 그 말 그대로다. 〈법화경〉은 죽음과 삶, 다시 죽음과 삶이 반복되는 시간선이면서 다보불이라는 선발주자가 석가모니라는 후발주자에게 건네는 바톤이다. 붓다의 일은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다. 〈법화경〉이란 바톤은 다음 주자에게 전달되며, 그 바톤은 선발의 기록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법화경〉이 죽음과 관련 있다는 것 외에 아미타불과 연관되는 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법화경〉에 아미타불이 나오지는 않는 것일까? 〈법화경〉에는 아미타불이 두 번 등장한다. 먼저 제7 '화성유품'에서 대통지승불이 출가 전 낳은 열여섯 왕자 중 한 명이 나중에 아미타불이 됐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별다른 내용이 없기에 무색무취하다. 반면 제23 '약왕보살본사품'에서 나오는 아미타불은 다르다. '약왕보살본사품'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반드시 아미타불의 정토에 태어난다는 내용이다. 즉 〈법화경〉이 자신의 경문을 읽는 이로 하여금 반드시 아미타불의 정토로 가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있기에 법연 스님은 〈법화경〉을 정토종의 방의(傍依)의 소의경전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무언가 아직도 〈법화경〉과 아미타불의 관계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필자의 내면에 깊이 각인돼 신앙의 지남이 된 하나의 영험담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화전기(法華傳記)〉에 따르면, 당나라 시절에 승연(僧衍) 스님은 극락에 태어나고자 〈법화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었으며, 3년 차가 되자 천독을 하게 됐다. 이 스님이 꿈을 꿨는데, 자신의 어깨 양옆으로 〈법화경〉의 문자(文字)로 이뤄진 날개가 솟아오르는 꿈이었다. 이 날개로 승연 스님은 단숨에 서방정토로 날아갈 수 있었다. 거기서 아미타불의 수많은 화신이 스님을 맞이하면서 다음의 게송을 읊어 주었다.

'그대(승연)는 탁세에 〈법화경〉을 외웠으니/ 중생들은 업장 때문에 〈법화경〉을 문자로 볼 뿐이지만/ 실상은 〈법화경〉의 문자 자체가 삼신(三身)을 모두 갖추었네/ 이제 이 날개로 그대의 몸이 완성되었네.'

즉, 〈법화경〉의 문자 그 자체가 날개가 되어 서방정토로 날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각원 아미타불의 양어깨 너머로 영산회상도라는 날개가 펼쳐진 이 상단이 나에게는 〈법화경〉을 전수한 승연 스님의 행지(行持)로 '결정화'되는 것이다. 불립문자라지만 나에게는 법화문자 그 자체가 화두이다. 〈동국대 박사〉

불교 근본 계율 나타내고
근본 죄와 무간 죄 분별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㉜ 오무간대죄악업(五無間大罪惡業)

"또 대범천아, 무간대죄(無間大罪)의 악업이 있다. 그것은 ①고의(故意, 일부러)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요. ②고의로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요. ③고의로 아라한(阿羅漢)을 죽이는 것이요. ④그릇된 소견으로 스님네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이요. ⑤나쁜 마음으로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 등이니, 이 다섯을 무간대죄의 악업이라 하느니라.

누구라도 이 다섯 대죄 가운데 하나만 지어도 출가와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출가와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런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출가한 위의와 형상이 있으므로, 역시 때리거나 감옥과 사지를 찢거나 목숨을 끊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느니라."

여기서는 불교의 근본이 되는 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무간죄와 4종(四種)의 근오무간대죄(根五無間大罪), 악업의 근본지죄, 또 4종 근본무간죄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는 대목으로, 이는 〈지장십륜경〉의 제작 연대와 당시 말법세계의 타락한 계율의 훈시를 적나라하게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오무간대죄의 사종악업근본지죄(四種惡業根本之罪: 살도음망殺盜婬妄의 사四 바라이죄)

"또 5무간 대죄악업에 가까운 '4종의 근본죄'가 있으니, 그것은 ①악한 마음으로 독각을 살해하는 것으로, 생명을 죽이는 큰 죄업의 근본 죄요. ②아라한인 비구니를 간음하는 것으로, 사행(邪行)을 즐기는 큰 죄업의 근본 죄요. ③보시로 받은 삼보 재물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도둑질하는 죄업의 근본 죄요. ④그릇된 견해로 스님네의 화합을 깨트림으로 이는 거짓말하는 죄업의 근본 죄니라. 만일 누구나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범하여도 출가하거나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이 있으면 …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출가한 …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사종 근본무간 죄의 분별(四種根本無間罪分別)

"이와 같으나 ①근본 죄이기는 하나 무단 죄가 아닌 것이 있고, ②무간 죄이기는 하나 근본 죄가 아닌 것이 있으며, ③근본 죄이기도 하며 무간 죄이기도 한 것이 있고, ④근본 죄도 아니요, 무간 죄도 아닌 것이 있다.

먼저 어떤 것이 ③근본 죄이기도 하며 무간 죄이기도 한가? 이른바 나의 법 안에서 이미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은 이가 구경에 이르러 사제(四諦)의 이치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을 짐짓 죽이는 것으로, 이는 근본 죄이기도 하고 무간 죄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은 나의 계율 중에서 빨리 쫓아내야 한다. 또 어떤 것이 ①근본 죄이기는 하나 무간 죄는 아닌가? 이른바 나의 법 안에서 출가하고 구족계를 받은 이가 짐짓 이생(異生, 여기서는 범부)을 죽이고, 방편으로 타인에게 독약을 주어 낙태(落胎)를 시킴이니, 이를 근본 죄이기는 하나 무간 죄는 아니라고 한다. 이들은 스님네와 같이 살 수 없고, 은혜를 베풀 수 없으며 스님들에게 공급하는 물품도 수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것이 ②무간 죄이기는 하나 근본 죄는 아닌 것인가? 이른바 어떤 이가 삼귀의계, 오계, 십계를 받고도 무간 죄의 한 가지라도 지으면, 그것을 무간 죄이기는 하나 근본 죄는 아니라 한다. 그런 이는 출가할 수 없고, 구족계를 받을 수 없나니, 만일 …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이 있으면 …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끝으로 어떤 것이 ④근본 죄도 아니요, 무간 죄도 아닌 것인가? 이른바 어떤 이가 삼귀의계나 오계를 받고도 불법승에 의심을 내고 혹 외도에게 귀의해 그를 스승으로 삼으며, 다소의 길 흉상에 집착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또 어떤 이는 여래가 설한 정법과 삼승(보살, 연각, 성문)의 정법에 비방해 스스로 막고 남도 믿지 않고 등지게 하며, 읽고 쓰고 베끼는 것을 방해하고 나아가 한 게송의 정법도 머물기 어렵게 한다. 이것을 근본 죄도 아니고 무간 죄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국히 중대한 죄업과 무간 죄에 가까운 죄가 된다.

이 같은 사람이 참회하지 않고 이러한 큰 죄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는 출가와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만일 … 구족계를 받게 하는 스승이 있으면 … 나의 법에서 쫓아내야 한다. … 이러한 2종(②, ④)의 사람은 정법의 눈을 깨트리는 행과 정법의 등불을 끄는 행, 삼보의 종자를 끊는 행 등으로 인해 온갖 나쁜 세계에 떨어지며 … 무간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 동안 고통 받아 고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내용은 현행 종단 운영상의 규칙면에서도 더욱 확고하게 확립시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본 죄와 무간 죄를 넷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분별을 제시함은 탁월한 '죄의 분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송림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⑯ 처서_남원 길을 걷다



▶한줄 요약
처서(處暑)는 여름 더위의 맹공을 막아서는 한계선으로, 햇살과 바람, 별의 이야기로 채워진 절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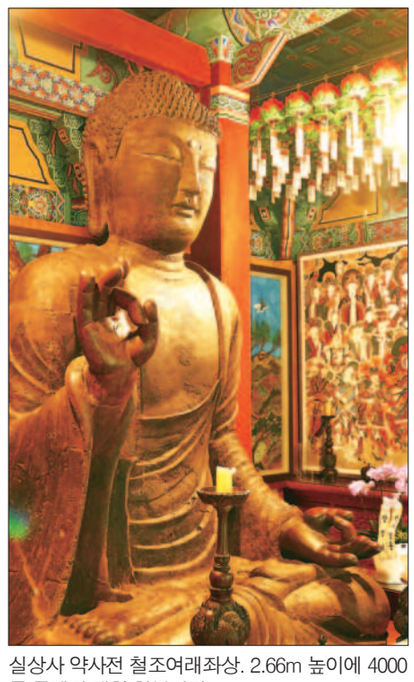
햇살과 바람, 별이 엮은 여름의 경계

처서는 햇살과 바람, 별의 이야기로 채워진 절기다. 낮이면 태양과 바람이 사이좋게 제 할 일을 하고, 밤이면 별의 모습을 한 신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성스럽게 빛나는 때.

기세등등하던 더위가 슬며시 제 풀을 꺾고, 깊은 밤 귀뚜라미와 함께 이별 노래를 부르는 시간. 지금은 처서다.



실상사 보광전과 보물 실상사 석등이 마주 보고 있다.



실상사 약사전 철조여래좌상. 2.66m 높이에 4000근 무게의 대형 철불이다.



보광전 방향에서 바라본 남원 실상사 석등과 동서 삼층석탑.



실상사 경내에서 바라본 논의 풍경. 절기가 지날수록 황금 들판으로 변신할 것이다.

가을로 간다

"처서가 얼마나 남았지?"

"글쎄, 앞으로 두어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이고, 아직도 한참이네!"

지난 7월 말, 재래시장을 걷던 중 우연히 듣게 된 어르신들의 대화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올해 처서는 8월 23일. 고로 처서는 이미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때여서 어르신들의 셈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다. 하지만 셈이 맞고 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대화 속 행간에 담긴 어르신들의 속내에 공감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푹푹 찌는 더위, 사람들로 가득 찬 좁다란 시장길은 후덥지근한 공기에 숨만 쉬어도 땀이 뻘뻘 나는 중이었다. 돌아가는 선풍기는 그야말로 무용지물. 이럴 때면 물건을 파는 이나 사는 이나 그저 시원한 곳에 순간이동이라도 하고 싶을 뿐이다.

무언가를 떠올리고 돌아올 날을 셈하는 것. 그건 기다림의 마음이다. 아마도 어르신의 마음이 향한 곳은 이른바 '처서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날일 것이다. 어떤 여름이라도 그 힘이 저무는 임계점이 있다면, 그건 아마 처서라고 말이다.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처서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절기는 여름 더위의 맹공을 막아서는 한계선이다. 그리고 마침내 태양이 황경 150도에 도달하는 때. 바로 그곳에서 처서는 시작되는 것이다.

햇살과 바람

음력 7월 15일경, 입추와 백로 사이에 존재하는 15일간의 절기.

〈고려사(高麗史)〉에서는 처서를 세 시기로 나누어 '첫 5일간은 매가 새를 잡아 제를 지내고, 다음 5일은 천지에 가을 기운이 돌며, 다음 5일간은 곡식이 익어 간다'고 전한다.

아마 이즈음 가장 달갑잖은 손님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처서비[處暑雨]'가 아닐까. 처서에 내리는 비를 뜻하는 처서비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기의 벼를 못 쓰게 만든다. 한창 여물어 가는 나락에 물이 고이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썩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처서비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과 달리, 햇살과 바람은 이 절기를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일등 공신 대접을 받는다. 처서에 볕이 쨍쨍하면 수확량이 곱절이나 높아진다고 하니 당연한 일. 농사 외에도 처서의 햇살은 보물과 같아서, 이 시기에 기억하고 시도해 보면 좋을 만한 옛 풍습이 있다. 바로 포쇄(曝曬)다.

포쇄는 여름 내내 눅눅해진 책을 볕과 바람에 말려 해충과 곰팡이를 없애고 훼손을 막는 작업. 먼저 바람을 쐬는 거풍(擧風), 그리고 뜨거운 볕 아래 말리는 포쇄, 또 필요에 따라 그늘에 말리는 음건(陰乾)을 함께 한다.

지난 2021년 해인사에서 123년 만에 열린 경책 1270권의 전권 포쇄 작업은 이와 같은 전통을 재현한 것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실록을 보관한 사고에 쇄별관을 보내고, 포쇄하는 일을 국가 대사로 여길 만큼 중요시했다고. 과거 추사 김정희와 번암 채제공 또한 오대산 서고에 보관된 실록의 포쇄를 위해 관리로 파견된 적이 있다.

'굽어보니 온 길 가까워 보이지만 / 모르는 사이 아득한 곳 들어왔네 / 봉우리 반은 온통 흰색에 잠기고 / 숲 끝은 아스라이 청색으로 꾸몄으며 / 법 구름은 밖에서 보호해 주고 / 신성 불은 설교 듣는 걸 지켜 주네.'

추사 김정희의 〈완당선생전집〉에 수록된 '포사등오대산'의 한 구절이다. 한양에서 수백 리 길을 달리고도 월정사에서 수 시간을 걸어야 닿을 수 있었다는 산중 서고. 일 년 내 잠들어 있던 비밀스러운 서고의 문을 연 것은 아마도 사람보다 앞서 도착한 가을 햇살이었을 것이다.

지난 계절의 미련처럼 눅눅해진 옷가지와 이불, 그리고 지질대는 책들을 햇살과 바람에 맡기는 것. 그 어떤 마음도, 물건도 이보다 더 좋은 씻김의 의식은 없을 것만 같다.

별들의 시간

제주에서는 처서 무렵, 그리고 백중날 여신의 옷을 바람에 날리는 '마불림제'를 올린다. 곰팡이가 핀 묵은 신의(神衣)를 거풍하며 액운을 날리고, 가축과 농작물이 불어나길 기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칠월 칠석의 날, 땅 위의 여인들은 또 다른 여신을 향해 간절한 손을 뻗는다.

오래전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길 바라던 옛 여인들. 그들이 베틀 위의 여신인 직녀를 향해 '별제사'를 올리던 걸교(乞巧) 의식이다.

음력 7월 7일, 칠월 칠석으로 불리는 이날에 멀고 먼 별의 세계와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진다. 견우직녀 설화는 칠월 칠석을 대표하는 별의 이야기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정반대의 위치에 떨어져 있던 두 별이 하늘을 돌아 만나는 날. 옛사람들은 1년에 단 한 번, 두 별이 교차하는 그 모습에 애틋한 연인들을 떠올렸다. 그렇게 두 별은 견우성(알타이르 Altair)과 직녀성(베가 Vega)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저 하늘 위 수많은 천체 중 하나가 아닌, 특별한 생명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된 것이다.

견우직녀 이야기가 칠월 칠석을 아련한 색채로 물들인다면, 칠성 신앙은 우리 민족의 수복(壽福)을 관장한 굳건한 믿음의 상징이다.

7개의 별이 함께 빛나는 북두칠성. 이 빛나는 국자 모양의 별은 여느 별과 달리 매일 밤 조금씩 이동하며 우주의 시간을 하늘에 새겼다. 땅 위의 인간들은 북두칠성을 통해 시간과 계절을 깨닫고, 마침내 생과 사의 권능을 느꼈으리라.

일곱 개 별은 어느새 하늘의 일곱 왕자가 되고 천신이 되며 마침내 부처님의 곁에서 뭇 생명을 지킨다.

별의 궁전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굽이굽이 펼쳐진 지리산 자락의 품에 폭 안긴 천년고찰 실상사. 이곳의 첫인상은 마치 광활한 지평선 위에 자리한 옛 궁전을 마주한 기분이다.

산중 사찰들이 땅의 형세에 따라 전각 높낮이가 다른 반면, 실상사는 끝없는 수평 속에 과거의 찬란한 유산들과 마주하는 것이다.

고색한 아름다움의 실상사 보광전과 그 앞에 자리한 동·서 삼층석탑(보물)과 석등(보물). 오랜 시간 땅속에 잠들어 있었다는 약사전의 철조여래좌상도 지금껏 땅 빛을 머금은 채 묵묵히 이곳을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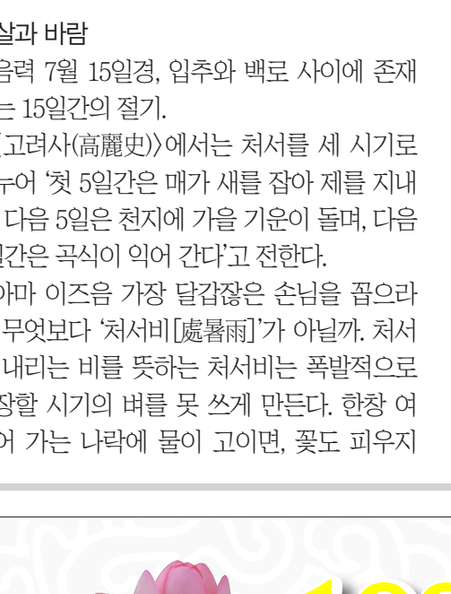
그리고 바로 그 곁에 칠성각(七星閣)이 있다. 마치 대지 위에 바로 선 것처럼, 유난히 문턱이 낮은 저 별의 궁전. 우리 민족의 오랜 민간 신앙이었던 칠성 신앙은 불교와 함께 어우러지며 이 땅의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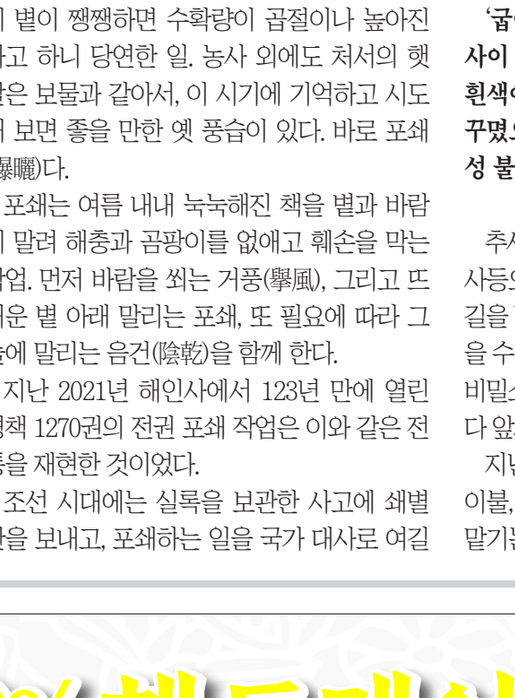
다가오는 칠월 칠석에는 전국의 사찰마다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칠석 기도가 이뤄질 것이다. 곧이어 백중이 되면 돌아가신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재도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살아 있는 자들의 세상에서 그 너머의 곳까지 간절한 바람을 전할 때는 역시 별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뭇 사람들의 기원이 하늘에 닿을 때쯤 이 절기는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저물고 가을은 누런 황금 들판과 함께 돌아오겠지. 그리고 별들은 다시 꿈을 꿀 것이다. 아주 오래전, 아무것도 아니던 어느 별에 가만히 소원을 속삭이던 처음의 목소리를. 〈작가〉

100% 핸드메이드 연꽃 복전함
장인의 손길 복을 담는 그릇





오동나무 원목 – 고급스러운 질감, 내구성 뛰어남
우레탄 금분 칠 – 오래도록 변색 없이 유지
복전함 & 박지문 양각 – 복을 모으고 지키는 의미의 상징
비밀 출금 구조 –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음, 구입자에게만 안내
전용 출금 도구 제공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청정한 연꽃의 기운과 복을 모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대형 (66cm×56cm×56cm) ⇒ 2,600,000원
중형 (56cm×46cm×46cm) ⇒ 2,300,000원
소형 (45cm 출시예정) ⇒ 1,9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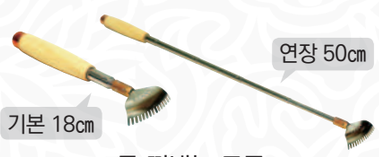
복 전 함 설치사례 부산 관음사







'박지문(博地門)' 글씨 양각 새김



돈 꺼내는 도구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도 다 버린다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나 내려온 역사로부터 현재의 불교는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는 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부처님 법이 따로 있지 않고 생활이라는 거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구한 역사라고 모두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라기보다는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피를 흘렸으며 아픔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볼 때에 아주 슬픔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는 누가 가져왔던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도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 유교로만 나갔기 때문에 도교를 하는 사람들의 말과 그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아서 국력도 대처 못 했고, 반면에 무기도 개발하지 못했던 겁니다. 무기는 그때 말마따나 창이나 칼이나 활을, 그나마도 여유 있게 대처를 못 했던 겁니다. 승군(僧軍)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승군도 그러하지마는 우리 백성들도 역시 무기가 모자랐고, 무기도 모자랐지만 반면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몸으로 대처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앉아서 버튼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불교가 따로 있고 우리 생활이 따로 있고 어느 종교든지 따로 있다고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만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생활 법이, 생활 행이 그냥 유(有)의 행이라고 볼 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잘 배워서 증득한다면 무(無)의 행과 유의 행이 첨보돼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 이 소립니다. 그 여건이 생기지 못할 때 우린 뭘로 대처를 하겠습니까? 예전과 같이 그렇게 대처를 못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국력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의 행으로써, 유의 법으로써 대처를 해야만 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생기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꼭 기계로써, 물질로써 해결을 해야만이 100%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을 쏴 올리고 인공위성을 쏴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시 70%, 80%밖에는 되지 않을 테죠. 100%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100%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일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마는 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몸을 병원에 맡기면 의사가 나를 고쳐주겠지 하고 밀어 던지는,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아무 데나 내맡기는 그런 습관이 많고, 또 이차적으로는 내 가정이 가난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를 좀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삽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누가 어떻게 다 대처하겠지 하고 전부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며,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끌고 다니는 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면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은 내 마음이지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부모자식지간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참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끊어짐이 없이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사회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할 때에, 우리는 육안으로 눈을 뜨고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는 바로 내 한마음 한 눈이라면 세계를 똑바로 볼 수 있고, 똑바로 들을 수 있고, 일체 전력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대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스울지 모르지마는 '부처님 법' 이러면 그저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기복으로서 내가 잘되게 해 달라고 하고, 또는 물건을 갖다 놓고 잘되게 해 달라고 빌고, 물건으로 이렇게 공을 들였으니깐 해 주실 테지 하는 의지심, 그런 것도 여기에는 붙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억겁을 거쳐서, 광년을 거쳐서 모습을 바꿔 나퉈 가면서 진화돼서 이날까지 끌어온 자기의 주인공의 뜻을 배신 아닌 배신을 하면서 바깥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찾아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극복하는 데 있어 '나 아닌 누가 하겠지'라고 미루면 안 됩니다. 불법에서는 나와 사회가 한 치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일이요, 그것이 다 사람이 하는 노릇입니다. 역사를 태평성대로 끌고 오는 것도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 여건이 부족하다면 예전보다도 더 처참한 역사를 가져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이 천부적으로 천연적으로 만법의 근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 사십구 년 동안 그렇게 행을 보여 주셨고 법을 설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을 몰라서 행을 제대로 못 한대서야 어떻게 불제자라고 하며, 어떻게 국민이라고 하며,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뜻과 더불어 둘이 아닐 때, 또 불과 법이 둘이 아닐 때 승보는 그렇게 부지런히,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고 살래야 살 시간도 없다 하게 되지요.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그 뜻은 몰락 놓고 뛰어넘어라 하는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왜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고 살래야 살 시간도 없다고 하나? 이 시대와 더불어 우주의 근본 삼천대천세계는 조금도 쉬지 않고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항상 끄달리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걸리면 걸리는 대로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한 치도 던져 보지도 못하고 들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엔 없는데, 그러면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좌천이 되고, 짐승이 되고, 짐승이 또 승진해서 사람으로 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고통은 영원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부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서 자성을 깨쳐서 유의 법, 무의 법을 한 손에 쥐고서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학적인 문명과 문화, 정치, 사회가 다 붙어 돌아갈 수 있는 문제를 너무나 역력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도리를 알면 국력이 튼튼치 못하다거나 수효가 적다거나 마음이 부족하다 할 때 주장자 하나를 던져서 그 수효대로 수만 개의 주장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일 수 있고 낼 수 있는 그 자유자재권은 여러분에게 다 달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손가락 하나 같은 나라에 살면서 그나마 또 반을 쪼개서 사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한대서야 어디 자기 몸 하나인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대인

☞ 2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정진하는 일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은 될 수가 없고, 대인보다도 자유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가르치신 본의가 하나도 없고 인간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도리를 좀 더 역력히 음미하고 좀 더 생각해서 완벽하게 터득하신다면 바로 자기 스승이 생겨서 자기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승이 생겨서 자기를 이끌 때에, 보임하면서 체험하면서 돌아갈 때 완벽하게 보임이 되어서 그 보임 자체도 없어야 할 때, 바로 주장자는 이름은 붙이지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소련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느 강대국에서는 지금 설치를 세 군데 네 군데씩 해 놓고, 물가에도 물을 견주어서 해 놓고, 과학이 발전이 돼서 이미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 대처 위에 또 누가 대처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쨌든 기계화기 때문에 100%가 아니 되고 70%, 80%밖에는 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보세요. 칼도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고 살리는 칼이 있죠. 칼은 하나지마는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죽이느냐 살리느냐도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칼은 하나입니다. 칼 하나에 죽이는 법도 있고 살리는 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처를 하는 것도, 인공위성을 띄운다 하더라도 100%를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70%, 80%뿐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들 모르겠지만, 아주 톡 꼬집어서 말한다면 70%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건 왜냐? 허공에도 생명들이 많아서 나투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생명들이 한데 합쳐져서 만약에 그 궤도를 제대로 돌지 못한 채 왕래한다면, 줄창 그러는 거는 아니겠지만 때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인공위성이 똑바로 어떠한 궤도에 오를 때에 제대로 정리를 못 하고 딴 데로 회전을 해야 되니깐요. 또 부딪칠 수도 있는 법이 있구요.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우리 인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깨닫는다면 주장자는 아무 데고, 인공위성에도 급하면 뛰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생명들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는 그 속에도 둘 아니게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것은 거론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하는 건데, 인공위성을 띄운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편에 의해서 위협을 주기 위한 문제가 붙어 돌아갈 때는 심각한 문제가 붙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체가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할지언정, 집은 남는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왜, 벼락을 맞거나 전기에 붙으면 사람 껍데기만 남고 몽땅 빨아들이고 말라 버리는 거 있죠?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부서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집은, '우리 집' 하는 건 지구를 말합니다. 우리 집은 튼튼히 궤도를 돌게끔 어느 여건에 안치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모르죠. 그것을 언제나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 항상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보람 있게 생동력 있게 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조그마한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요, 조그만 나라를 지키기 위함보다는 전체 생명들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들뿐만 아니라 몸도 둘이 아니게 공용을 하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독불로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할 때는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주장자를 던지는 그러한 묘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둘이라고 볼 때에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합을 이루지 못하지만, 역시 던졌다 거뒀다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앞으로는 조화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정진을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정진을 게을리해서 세세생생에 끄달리는, 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허물을 썼어도 하루가 모자라서 짐승으로 도로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기대지 않는 마음, 남을 헐뜯지 않는 마음, 남을 증오하고 업신여기고 둘로 보고 앙심을 먹고 이러한 마음이 몰락 없어져야 이름해서 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둘로 보고 항상 증오하고 이것 끄달리고 저것 끄달리고 한대서야 어찌 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색(色)을 보고서 물질 50%만 가지고 이게 다라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무(無)의 진지한 세계에 찰나찰나 나투면서, 온 누리를 가고 옴도 없이 가고 오며, 찰나에 나 아님이 없이 그렇게 묘한 도리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모를 때에는 무전통신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 수가 없어. 수레바퀴 다섯 개가 그냥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정돈해서 내가 책정을 한다면 이것은 만년묵이로서 영원히 굴려도 굴려도 줄지 않고, 굴려도 굴려도 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대도의 뜻이 거기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 안 하고 함부로 말을 해 버리고 함부로 생각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미 한 마리를 보더라도 절대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개미의 생명도 개미의 살림도 개미의 자식도 개미의 부모도 친척도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넘기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의정을 냈지만 지금은 의정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공했고 내 자체가 공했는데, 공했다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거기에 끄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고정된 관념이 없고, 고정된 말이 없고, 고정되게 보는 게 없고, 고정되게 듣는 게 없고, 다니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남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렇게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서 공한 것이 아니거든. 너무도 철두철명하게 너무도 역력하게 찰나찰나 나투고 돌아가기 때문에 공이라고 했고 무라고 했지 그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생사라는 것도 생과 사가 그렇게 쉴 사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곳에 생이라고 붙이고 어느 곳에 사라고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에도 걸림 없다. 생사도 둘이 아니다. 윤회도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그도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함도 아니고 그를 위함도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인간의 도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도리를 모르면 아니 되죠. 무의 법의 그 묘한 도리가, 광대무변한 그 도리가, 만법의 무의 도가 지금 생활에 바로 접근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또 어떠한 문제든 우리가 무심으로써 모든 걸 몰락 놓고서 나를 깨쳤을 때는, 물론 여러분이 한 번쯤 아니면 몇 번쯤 체험을 해 보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 도리를 아실 겁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한생각에 아무 데나 칼을 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타신이 들려서 아는 소리나 하고, 환상이나 보고 이게 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몰락 놔 버려서 녹여 버려야 되겠지마는, 이 뜻을 완벽하게 알아서 주장자를 하나 탁 던질 때에는 어디고 적응이 돼. 전체 우주에도 적응이 되지만, 정치에도 적응이 되고, 모든 과학적으로도 전부 거론이 되고, 전체가 거기 적응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가 나 아님이 없고, 전체가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없을 때에 비로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겨요. 그리고 세계를 조화롭게 화합을 이루게 하는 마음을 낼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되죠.

> 진실한 마음, 기대지 않는 마음, 남을 헐뜯지 않는 마음,
> 남을 증오하고 업신여기고 둘로 보고 앙심을 먹고
> 이러한 마음이 몰락 없어져야 이름해서 도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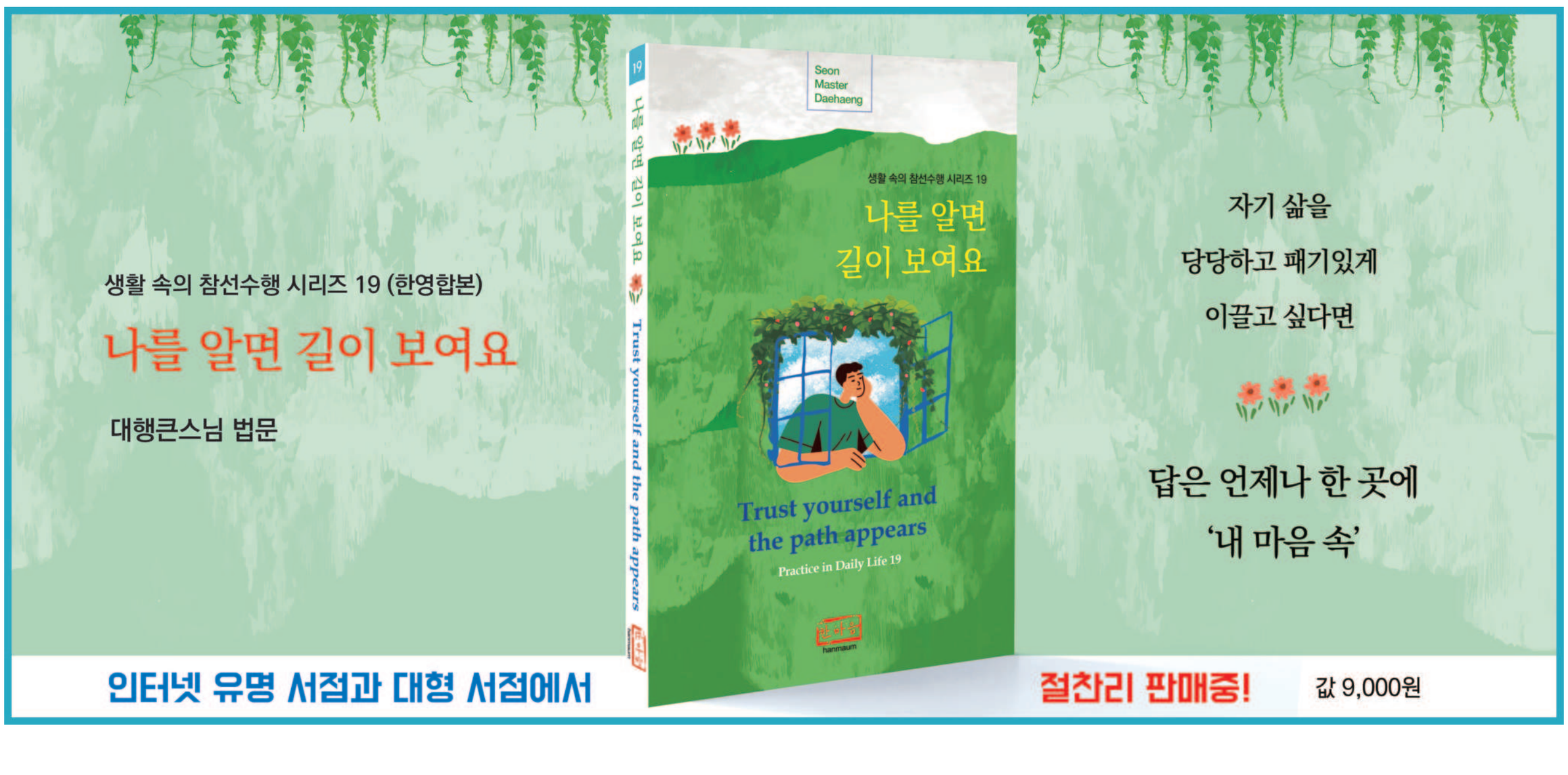
언젠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마는 중공이나 세계 다른 나라들과 무역이나 상업의 거론이 있었을 때에 정치도 거론이 되고, 마음이 한마음 한뜻으로 융화돼서 돌아가고 부처님 법으로서 돌아간다면 우리가 좋은 불국토를 이룰 수도 있으며, 마음들이 제대로 돼서 인의롭게 순리적으로 평화스러운 역사를 가져올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는 정진하는 일입니다. 시급한 문제가 정진하는 겁니다. 정진을 해야만이 그것이 성립이 되니까. 정진을 하되 정진이라는 그 자체까지도 놓으라고 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변소엘 가나 법당엘 가나 참선이라고요. 이름을 지어서 와선이니 좌선이니 행선이니 또는 입선이니 하지만 모두가 참선 아님이 없습니다. 또 간화선이니 묵조선이니 하고 나누어 왔지만 우리가 움죽거리고 살아나가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 정진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믿고 안으로 굴리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남한테 물으려 하기보다 자기 주인공에 놓으세요. 그리고 남한테 듣는 거는 거름 삼고 주춧돌 삼아서 내 거를 만들고, 또 내 거를 만들고 나서도 붙들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느꼈으면 느낀 대로 그냥 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당기는 거는 먹고 놓고, 안 당기는 거는 믿고 놔라." 이런 말을 했죠. 당기는 거는 먹을 때에 맛있으니 감사하게 먹고, 안 당기는 거는 믿고 놔라.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안 되는 것은 믿고 놓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참선 못 할 분이 없고, 싱싱한 몸을 가지고 나를 끌고다니면서 조금도 허탕한 일이 없이, 또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도 다 버린다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날이 궂었다고 해서 항상 궂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금방 볕이 듭니다. 그러니 볕이 들어서 좋다고 붙들고 있고, 날이 궂었다 해서 또 붙들고 있고 이런다면은 얼마나 공부에 지장이 가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8월 24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⑯ 아나빠나 삿띠 2

‘알아차림 지점’의 중요성

아나빠나 삿띠. ‘아나빠나’란 ‘들임(아나āna: 받아들임)과 버림(빠나 āpāna: 내보냄)’이란 뜻이다.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또 몸 밖으로 버려진다는 뜻이다. ‘호흡’, ‘숨’, ‘몸’ 또는 ‘내가 숨을 쉰다’라는 개념은 자칫 수행의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저 공기의 ‘들어왔다 나감’이라는 ‘있는 그대로(실재實在)’의 현상을 보아야 한다. 자연적인 또는 자동적인 공기의 들어옴과 나감을, (내 것이 아닌) 조건 지어져 생멸하는 그 무상한 움직임을, ‘삿띠(알아차림)한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서 알아차리냐’는 것이 중요하다.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곧바로 세우고 **(숨의) 입구 주위에 알아차림을 확립하여** 앉는다.” 〈아나빠나삿띠 수타 Ānāpānasati sutta(출입식념경出入息念經, M118)〉의 앞부분 말씀이다. 또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Mahasatipatthana sutta(대념처경大念處經, D22)〉의 앞머리에도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외진 처소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곧추세우고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라고 쓰여 있다.

해탈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석가모니 붓다께서 역설하신 사념처(四念處) 수행은 “숨의 입구 주위(인중 자리)에 알아차림을 확립하여 앉는다” 또는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한다. 사실 여기서부터 콱 막힌다. “아니! **전면에 알아차림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수행 끝난 것 아냐?” 알아차림의 지속을 늘려가는 것, 바탕자리의 하나됨을 것을 유지하는 것, 자나 깨나 알아차림이 확립돼 있는 것. 그것이 수행의 과정이자 목표인데, 경전 말씀의 시작부터 너무 높은 수준의 전제 조건이 제시된 건 아닌가.

‘전면’은 어디인가?

전면에 알아차림을 고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중 부위의 허공’을 〈청정도론〉에서는 설정하고 있다. (그림 참조) 말 그대로 바로 ‘코앞’에서 숨을 알며, 알아차림을 유지한다. 윗입술 바로 윗부분이자 코의 바로 밑부분에 해당하는 인중 부위의 들숨과 날숨의 바람의 움직임을 본다. 그런데 알아차림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정시켜 놓고 대상을 보는 것이다.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었다. 그 의미를 체득하고 “아! 석가모니 붓다는 천재시구나!”라며 무릎을 치게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다.



“숨의 입구 또는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앉는다.” 〈대념처경〉 ©강소연

처음에는 사마타 수행방식으로 기를 쓰고 집중을 하다가 상기병(기운이 몸의 상체인 머리와 어깨 쪽으로 몰려 생기는 울체 증상)이 와서 혼이 나기도 했다. 한동안 수행을 멀리했다. 수행을 제대로 하면 몸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몸이 더 망가지다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평생을 로바(Lobha, 탐심)의 에너지로 살았으니 수행 역시 로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삼매 체험을 한 번 했다고 섣불리 위빠사나를 하겠다고 덤비면 큰코다친다는 것을 알았다. 위빠사나 수행을 가능케 하고 그것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결국 꾸준한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을 고생을 하고서야 알게 됐다.

내 몸 밖, 나로부터 ‘분리’된 지점

중요한 것은 몸과 살짝 떨어져 분리된 지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몸 밖’에서 숨이라는 실재를 감지할 수 지점은 사실 여기(인중 위 허공)밖에는 없다. 몸 안에서 숨에 대한 인식은 수[受: 느낌] 관찰로 전환된다. 길을 걷다가도 이 자리로 의식이 분리가 되면, 초선(初禪)의 희열(멀리 떠남 또는 분리에서 오는 희열) 상태를 맛볼 수 있다.

몸에서 떨어진 지점이지만 숨이라는 실재를 볼 수 있는 곳. 몸에서 ‘분리’된 지점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 ‘식(識: 의식)’이 아닌 ‘지(智: 지혜)’로 대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나빠나 삿띠로 바로 ‘나’로부터 분리된 ‘지(智)’를 (개념으로가 아니라) ‘실재적으로’ 밝힌다.

에고(내 몸과 내 마음)와 함께 발동하는 ‘아는 마음’인 의식은 ‘대상과의 동일시’가 본인이 하는 일이기에 관찰이 불가능하다. 마음이 대상에 붙어서 같이 돌아가면 그것은 업장이 된다.

하지만 ‘지’라는 불성(佛性)은 분리됐기에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마음에서 대상을 분해해서 보는 통찰지가 발사된다. 대상의 생멸이 관찰되면 더 이상 업장은 만들어지지 않고, 업장은 정화의 길로 들어선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⑯ 파스 고르는 법

성분과 통증 위치 따라 파스 선택해야

“파스는 어디 있어요?”
“파스는 저 진열장에서 골라보시죠.”
“어떤 파스가 제일 좋아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데요?”
“허리가 아파요.”
“갑자기, 아니면 좀 오래된 통증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제일 좋으냐니까요?”
“허리 통증이면 넓은 습포제류가 좋은데….”
“(듣지 않음) 이게 제일 좋아요? 흰색 말고 살색은 없어요? 큰 거 싫은데. 냄새 안 나고, 효과 빠르고, 크기 적당하고, 제일 싼 걸로 주세요.”
“그럼 이 제품 어떠실까요?”
“아, 그냥 케토톱 주세요. 광고 많이 하더라.”

익숙한 전개다. 허탈하다. 약국의 30개가 넘는 파스 중 고객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 떠올린 고민이 자본주의 마케팅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순간이다. 사실 그래도 된다. 케토톱은 좋은 제품이다.

케토톱은 케토프로펜이라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주성분으로 한 파스로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막아서 효과를 낸다. 얇고 신축성이 좋아 신체 어느 부위에도 무난하게 사용 가능하며, 효과 역시 뛰어나 오랜 시간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됐다.

광고를 많이 하더라도 실제 제품 효과가 좋지 않으면 그 제품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한다. 외모가 수려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면이 그렇지 못하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내면까지 갈고 닦은 선사라면 그 매력으로 꽃에 나비가 꼬이듯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케토톱도 그런 제품이다. 하지만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오늘은 약국에서 파스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기준은 성분에 따라 파스를 고르는 것이다. 파스는 주성분에 따라 크게 NSAID 계열의 소염진통제 파스와 한방 파스로 나눌 수 있고,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시원한 쿨파스와 따뜻한 핫파스(고추 파스)로 나눌 수 있다.

NSAID 계열 소염진통제는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펠비낙, 록소프로펜 같은 성분들을 말한다. 성분마다 각각 특징이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 측면에서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각 성분의 피부 투과도나 지속시간은 실제 파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SAID 계열의 파스는 종류가 가장 많기도 하고, 작용 속도와 효과 지속시간이 무난하므로 다친 직후부터 만성 통증까지 폭넓게 사용된다. 케토톱이나 아렉스 종류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성분 중 일부는 빛에 대한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 햇볕을 직접 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용 나이 제한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 아이와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한방 파스는 황백, 치자, 위령선, 목별자 같은 포함된 약재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 보통 급성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킨 후 혈액순환을 촉진, 점차 관절 및 근육의 염증성 물질과 노폐물을 제거해 진통 효과를 낸다. 따라서 오래된 만성 통증이나 체질성 통증, 냉증성 질환 등에 효과적이다.

파스를 보면 쿨(Cool), 핫(Hot) 표시가 된 것이 있는데, 쿨파스는 멘톨과 캄파라는 성분을 함유해 피부에 시원한 느낌을 주고, 피부의 열을 내리고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의 확산을 막고 붓기를 줄여 준다. 즉시 생긴 통증이나 운동 중 타박상, 삠 등에 사용이 적합하다.

‘고추 파스’로 알려진 핫파스는 캡사이신, 노닐산바닐릴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을 말하는데, 이는 피부를 따뜻하게 해 모공을 열어 진통제 성분의 흡수를 돕고, 혈액 순환을 활발히 해 염증성 물질의 제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래된 통증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두 번째 파스를 고르는 기준은 통증 위치에 따른다. 파스에는 한 겹으로 얇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플라스타 제품과 두 겹으로 별도의 점착포가 있는 희고 두껍고 촉촉한 습포제라고 부르는 카타플라스마 제품이 있다.

플라스타는 케토톱 같은 얇은 살색 파스를 말하는데, 이 종류의 제품들은 접착력이 좋고 신축성이 좋아 움직임이 많은 관절 부위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두 겹의 카타플라스마 제품은 왜 이중으로 만들었을까? 이는 약물 부위의 접착력이 약해 따로 접착 부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덜해 파스로 인한 알러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알맞다. 이 제품은 습포 형식으로 수분을 가둬 찜질 효과를 내어 통증을 줄여 준다. 크기가 크고 접착력이 약하므로 움직임이 적은 크고 넓은 등이나 허리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만약 파스를 붙이고서 피부가 가렵고 붓는 알러지가 생긴다면 이는 주성분에 의한 광과민성 알러지일 수도, 점착제에 대한 피부 알러지일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점착제가 없는 바르는 겔 타입 외용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피부 자극을 줄인 하이드로겔 제형의 파스도 있으니 이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복잡하다면 파스에 관해서는 이것만 외우자.

급성 통증에는 NSAID 성분의 쿨파스 제품.
오래된 통증에는 NSAID도 좋지만, 한방 파스나 핫파스 제품.
움직임이 많은 관절 부위에는 작고 얇고 잘 붙는 플라스타 제품.
움직임이 적고 큰 근육에는 넓고 두꺼운 카타플라스마 제품.

그것조차 외우기 귀찮다면 파스를 어디에 붙일 것인지, 언제부터 통증이 생긴 것인지, 피부 알러지가 있는지를 생각해 동네 단골 약국으로 가자. 그리고 약사님을 찾아라.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파스를 딱 맞게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전법 일기

나성(羅城)에 가면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은 세샘트리오가 1978년 발표한 대중가요다. 제목 '나성(羅城)'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줄임말인 LA를 음차한 것으로 1970년대 당시 군부정권의 외래어 사용 규제 때문에 'LA에 가면'이라는 제목이 '나성에 가면'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2014년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심은경 배우가 극 중 열창해 한 번 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곡이 됐다. 이 덕에 미국은 가 본 적이 없는 나도 먼 타향의 정취와 향수(鄕愁)의 도시로 LA를 떠올리곤 했다.

그러다 올해 여름 LA에 방문할 일이 생겼다. 국제포교사회가 숭산 큰스님께서 창건하신 LA 달마사에서 열리는 '제1회 자타카 어린이 영어 캠프'의 지도법사로 동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매년 초 초등학생 불자들이 〈자타카(부처님의 전생담)〉를 영어 스피치와 각종 공연 형식으로 선보이는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가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 대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의 한국불교를 경험하게 해 주고 싶다는 발원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영어 캠프라고 하니 자못 기대됐다.

7월 18일 9명의 아이들과 처음 만나 함께 인천공항에서 LA로 가는 열두 시간의 비행에 올랐다. 입국심사장에서 "All kids are your sons and daughters?"(이 애들이 다 당신 아들딸인가요?)라고 오해 받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고, 한국의 두 배 이상 되는 물가에는 많이 놀랐다. 또 LA 달마사 주지 금선 스님과 달마사 정음한글학교장 우상 스님, UCLA 한국학 방문 연구원 천경 스님, LA 안국선원 주지 웅산 스님 등 많은 스님과 달마사 청년회 등 교민 불자님들의 큰 협조와 보살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LA 달마사에서 오전에는 숭산 스님의 전법제자인 폴 박(Paul Park) 법사의 불교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LA 근교의 유명한 관광지인 자연사 박물관이나 그리피스 천문대, 게티 빌라 등을 돌아보며 미국 서부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던 아이들도 금세 친한 동무가 되어 어느새 이동하는 버스 안은 좀처럼 조용할 새 없이 소란스러워졌지만, 그마저도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아이들 웃음소리, 쉼 없이 재잘대는 소리로 도량이 가득 찼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새삼 한국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아쉬운 마음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오를 때,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돌아다보았다. 맏언니같이 의젓한 우현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노래를 잘 부르던 체육부장 시우, 도라에몽 프로펠러 모자가 잘 어울리던 재주 많은 연우, 승부욕이 강한 똑순이 채은이, 장래 희망이 선생님인 재인이, 스케이팅 선수 키다리 소빈이, 여성스러우면서도 터프한 세린이, 비행기 앞 좌석에서 스님을 자꾸 훔쳐보고 씩 웃던 선나, 늘 관심과 사랑이 받고 싶은 동건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 속에 무탈하게 잘 다녀감을 감사드렸다. 이제 '나성에 가면'을 들으면 떠오를 아홉 분의 천진불이었다.



눌은 스님 전 범어사 포교국장
(현 부산불교방송 언론특보)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⑲ 확암 선사의 오도송

화롯불 속 흰 눈처럼 번뇌 사라지니

소 길들이는 채찍도 고삐도 필요 없고, 사람도 소도 모두 사라지니(鞭索人牛盡屬空)
푸른 하늘은 광활하여 오도(悟道)의 소식 전하기 어려워라(碧天遙濶信難通)
붉게 타는 화롯불 속의 흰 눈처럼 번뇌 없으니(紅爐焰上爭容雪)
이제야 조사의 깨달음에 이르네(到此方能合祖宗)

확암 사원(廓庵 師遠, 1103~1176)은 중국 남송시대 때 정주(鼎州) 양산사의 스님으로 〈십우도(十牛圖)〉를 저술했다. 십우도는 선가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목동(牧童)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가는 과정에 비유해 10단계로 제시하는데 먼저 알기 쉽게 열 개의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게송(선시)을 붙여서 구성됐다.

'십우도'의 그림은 달마도와 함께 선화(禪畵)를 대표하고, 게송은 선시(禪詩)를 대표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불교미술과 예술, 그리고 시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선종의 구도자는 자신의 본래 성품인 불성을 찾아 부처가 되는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는다.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계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암(확연하게 툭 트인 암자의 뜻이므로 '곽암'은 잘못된 이름이다) 선사가 깨달은 오도송을 여덟 번째인 '인우구망(人牛俱忘)'으로 선택했다.

'십우도'는 '찾을 심(尋)'을 써서 '심우도'라고도 부르는데,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는 ①심우(尋牛),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②견적(見跡), 드디어 소를 발견하는 ③견우(見牛), 소를 도망가지 못하게 고삐로 묶는 ④득우(得牛), 소가 잘 길들어 고삐도 채찍도 필요 없는 ⑤목우(牧牛), 목동이 소 등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⑥기우귀가(騎牛歸家)까지 소를 찾는 발심과 수행이 끝난다.

⑦망우존인(忘牛存人)은 집에 돌아온 목동이 이젠 안심이 되어 소에 대한 걱정을 잊고 홀로 누워 즐긴다.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의 세계는 사라지고 바라보는 주체만 남았다.

⑧인우구망(人牛俱忘)은 주관과 객관이 함께 사라져 하나로 합일된 깨달음의 세계이다. 3·4구에서 "붉게 타는 화롯불 속의 흰 눈처럼 번뇌가 없으니 이제야 조사의 깨달음에 이르네"라고 읊었다.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는 공의 세계를 깨달아 부처가 된 공왕불(空王佛)의 경지이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 망상이 사라졌다. 둥그런 일원상(一圓相)으로 표현했다. 보명(普明) 선사의 목우도(牧牛圖)는 '소도 목동도 둘 다 소멸하는[雙泯]' 인우구망에서 최종 수행 단계가 끝난다.

⑨반본환원(返本還源)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시작한 본래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자연)으로 돌아왔다. ⑩입전수수(入廛垂手)는 많은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보살의 자비행을 실천한다. 마지막 깨달음의 완성 단계이다.

인간의 삶은 주관[六根, 감각 기관]과 객관[六境, 인식의 대상]을 통해 인식 작용이 이루어지고 실상과 진리에 대한 앎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인식 작용의 주체가 되는 감각 기관인 육근(六根)이 청정하면 바르게 볼 수 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뒤틀어지면 바르게 볼 수가 없어 고통에 빠진다. 또 바라보는 대상의 겉모습[相]에 집착하면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인우구망(人牛俱忘)'은 무아(無我)와 무경(無境)의 경지에서 자신도 소도 모두 잊고, 주체와 객체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 자유를 터득한 인경구탈(人境俱奪)의 경지이다.

그러나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신만고 끝에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대승 보살행이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사찰음식 가치는 '오관게'에 있다

8월 19일 현재 16일 간 지속된 폭염으로 스페인에서 1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기후 위기가 절실히 체감되는 소식이다.

기후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의 식문화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숲이다. 하지만 숲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바로 인간의 식탐 때문에.

전 세계 농지 중 소·양·염소 등을 방목하는 토지가 70%, 사료 생산을 위한 농지가 13%에 달한다. 인간이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 활용되는 농지는 17%에 불과하다. 뒤집어서 말하면 인간이 육류 섭취만 줄여도 이 혜택은 수많은 동식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식문화는 중요한 화두다.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음식을 선택하는 '기후미식'이라는 개념이 부상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실제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국가 식이가이드(Food-based dietary guidelines)'를 적용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로 된 빵과 파스타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모두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8월 19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사찰음식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세계 음식학 석학들은 지속가능한 식문화의 해답으로서 한국불교의 사찰음식에 주목했다. 석학들은 사찰음식은 "지속가능한 식문화의 본질(파올로 코르보)"이라고 입을 모았다.

석학들이 매료된 사찰음식 본질에는 바로 '오관게'가 있다. 브렌던 R. 월시 미국 CIA 학장은 "'오관게'에 식문화의 미래가 담겨 있다"며 "최근 CIA는 음식물 쓰레기, 재료를 대하는 방법, 동물복지 등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대한 해답이 사찰음식에 있다"고도 했다.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에 가장 부합하는 식문화는 한국불교의 사찰음식이다.

한국불교가 알려야 할 사찰음식은 조리기술에 있지 않다. '오관게'에 바탕으로 한 생명사상에 있다. 이것이 세계인이 주목할 사찰음식의 가치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특별기고

불교, '지역 소멸' 극복 대안

"2024년에는 우리나라 시군구 229개 중 157개(68.6%)가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8월 6일 열린 '지역관광 활성화의 패러다임 전환과 실행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맞물린 '지역 소멸 위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다. 이런 가운데 천태종 구인사가 위치한 단양군은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합산한 '생활 인구'가 등록 인구 대비 9배를 기록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단양군은 "생활 인구 유치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는 사찰과 불교계가 생활 인구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고를 보내왔다. 〈편집자 주〉



평창 월정사에는 연간 147만 명이 방문해 거주 주민 2500여 명에 맞먹는 소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사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2040년 다수 시 · 군 유지 어려워
불교 인구 유동력, 정주 인구 수준
지역 소멸 극복 위한 '사회적 자본'
정부와 공동체 되살리는 역할 해야

'지역 소멸' 현상은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고령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소도시나 농산어촌 지역이 점차 공동화(空洞化)되어 적정 인구 유지와 온전한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십 개의 시·군이 2040년 이전에 행정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회복탄력성과 다양성이 약화하는 구조적 위험이 국가 전체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역 소멸은 인구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붕괴와 정체성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다.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은 '인구 이동→자본 유입→의사결정 구조 변화→쇄신 확산'의 과정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인구 유동의 문제는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다. 과거 위성도시 건설, 공공 기관 및 대학 캠퍼스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인위적 분산정책을 실시한 것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인위적 분산정책은 효과 면에서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 유치 경쟁에서 교류 인구(또는 생활 인구) 활성화, 지역 주도성과 다양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보성(相補性) 접근 유도, 사회적 자본과의 능동적 연계·협력 등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적 자본·국민 간 다각적인 연계·협력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공간이며, 지방은 대한민국의 변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핵심이라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전국 각지의 소멸 위험 지역이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중심축'을 변화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역 소멸 극복과 대응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아닌, 국민과 지역, 정부, 사회적 자본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집단적 의무이고 모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종교·시민단체·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 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원을 의미한다. 종교·시민단체 등과 참여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느끼는 '공동체 정체성' 구축이 핵심이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공동체 붕괴, 정체성 상실 등이 동반되는 지역 소멸 위기에서 회복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 내부의 사회적 자본이 핵심 동력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가치와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불교와 불교유산은 사람의 유인과 흐름을 촉진하는 '인구 유동력(遊動力)'을 지니고 있다. 불자들처럼 사찰을 신앙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계 인구'와 지역·사찰과 직간접적 관계는 없지만 관람,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찾는 방문객, 즉 '교류 인구'가 모이고 흩어지는 공간이 바로 사찰이다.

관계 인구와 교류 인구는 정주(定住) 인구는 아니지만, 일시적 지역 이동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경제적 소비 현상으로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국의 사찰을 방문하는 관계 인구와 교류 인구는 곧 인구와 경제를 좌우하는 동인력(動因力)이며, 소멸 위기 지역의 중요한 생명력인 것이다.

강원도 평창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이곳에 소재한 월정사에는 연간 147만 명이 방문하며(2025년 국립공원공단 자료), 이들의 관광 관련 지출의 규모는 평창군 거주 주민 2500여 명이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수준이다.('관광대체효과분석'에 의한 필자의 간접적 추정치) 2025년 기준 4만 명 수준인 평창군 인구수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수치다.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 진관사 역시 연간 26만여 명(2024년 기준)이 방문하며 이들의 지출 수준은 1000명 이상의 은평구 주민의 지역 내 소비 수준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정사와 진관사는 지역 명소로서 교류 인구의 방문과 소비가 상당수의 지역 주민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관광대체효과'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많은 사찰이 관계·교류 인구를 유인하고 지역 내 경제적 흐름을 견인하며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불교와 불교유산이 지닌 종교적 상징성과 관광 매력성은 불자와 관광객을 모으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힘이자 가치이고 자원인 것이다.

불교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사회적 자본 중 하나다.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불교가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에 체계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불교의 인구 유동력 강화를 위한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는 불교의 인구 유동력과 적극적인 정책 파트너십을 모색해 지역 소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 소멸은 단지 지역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불교가 이 위기 속에서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되살리는 종교, 사라지는 지역에서 깨어나는 종교가 되길 기대한다. 위기의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불교가 새 정부와 함께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세대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숭고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함께하는 행동과 노력이 대중의 희망을, 지역의 희망을, 나라의 희망을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불교의 희망 또한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곧 포교의 정의이고, 종교의 정의이고, 사회의 정의가 아닐까?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
(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

社 說

교구본사 출가학교, 한국불교 희망 되길

조계종이 출가자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구본사 차원의 출가학교 운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제7교구본사 수덕사가 오는 9월 '선 출가학교'를 개설한다. 종단이 주최하고 교구본사가 주관하는 형태의 출가학교로는 첫 사례다. 이어 제21교구본사 송광사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계종의 출가자 수는 1990년대 400~500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에는 61명에 불과했다. 다행히 최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

출가자 감소는 종단의 인력 기반을 약화하고, 나아가 수행·포교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이 출가학교를 제도화하고 교구본사별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뜻깊다. 물론 출가학교가 출가자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가를 꿈꾸는 이들이 직접 승가의 삶을 체험하고, 출가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분명 중요한 시작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속성과 체계성이다. 교구본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되, 종단 차원의 운영 지침과 교육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구본사별 출가학교가 더욱 확대돼 많은 이들에게 출가의 인연을 심어 주기를 기원한다.

복날 채식, 무더위 이기는 지혜

복달임 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삼계탕으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육식 복달임 대신, 콩과 버섯 등을 이용한 채식 복달임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선조들은 삼복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보양식을 즐겨왔다. 그러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복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영양소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오히려 콩국수나 버섯전골, 도토리묵밥 같은 채식 위주의 건강식을 찾는 것이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의 취향도 반영된 결과다.

불교환경연대는 수년 전부터 '복날 채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탄소 발생의 주원인이자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육류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과 제철 채소를 활용하는 채식 보양은 건강을 지키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 준다. 특히 과도한 동물 희생을 줄이면서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살생과 자비의 가르침에도 부합한다.

불교의 자비 정신은 인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복날 채식은 불교적 생명관의 현대적 실천이자, 기후위기와 동물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복날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지혜를 나누는 날이자, 몸과 마음을 맑히는 날이 되도록 불교계에서도 복날 채식 문화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8월 27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8월 2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들과 종도님들을 모십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8월 2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계룡사
• 주 지 : 법륜 (속명 : 권윤집)
• 승 번 : 003931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깊은내길 14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녹 원 법하


2025 영캠프 youngcamp
사유의 문을 열다!
자연인
2025.9.16.(화) 17:00 - 21:00
장충체육관
dongguk UNIVERSITY